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SMALL GROUP MINISTRY FOR RECOVERY OF THE COMMUNAL CHARACTER OF THE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YUNGAM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JIN CHUL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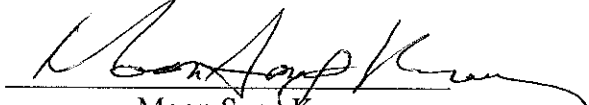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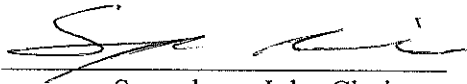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January 31, 2015

**SMALL GROUP MINISTRY FOR RECOVERY OF
THE COMMUNAL CHARACTER OF THE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YUNGAM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JIN CHUL LEE

JANUARY 2015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
- 명암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 문 상 교수

이 진 철

2015년 1월

Abstract

Small Group Ministry for Recovery of the Communal Character of the Chur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yungam Presbyterian Church

Jin Chul Lee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stead of the staggering numerical growth of the Korean church in the past, now it is not only stagnant but has also lost its credibility in society. While many ways are suggested to address this issue, I think that before everything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must regain its communal nature.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paper is to present a pastoral strategy to regain the church's communal character through small group ministry.

This ministry focus paper consists of seven chapters. The first chapter of this paper introduces the questions,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While discussing the church in etymolog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terms, chapter 2 explores the purpos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Chapter 3 argues that small group ministry could regain the church's communal character. This chapter insists the necessity of small group ministry in the present cultural, social, and pastoral context after describing the definition, characteristics, functions, and types of small group.

Chapter 4 introduces two churches - the Hwapyung Church and the Daekwang Church - that provide good examples of small group ministries for regaining the communal character of the church. After depicting the histories,

backgrounds, and pastoral philosophies of those churches, this chapter examines how their small group ministries have helped them to regain their communal character as the church.

Chapter 5 describes the history, background, and current state, and issue of lost communal character of the Myungam Presbyterian Church. After scrutinizing the church's ministries, this chapter suggests and argues for a strategy based on the renewed small group ministry to address the issue of communal character.

Chapter 6 represents an effective pastoral strategy of small group ministry for regaining the communal character of the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This strategy emphasizes that in small groups; all church members become lay ministers; leaders are equipped, and evangelism is mobilized.

Chapter 7 concludes this ministry focus paper by summarizing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서도 본 과정을 마치게 하시며,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자상하게 배려해 주시며, 세밀하게 지도해 주신 권문상 교수님과 늘 사랑과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 김태석 목사님, 그리고 학교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온 나의 사랑하는 아내, 안시일 사모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최고의 선물인 아들 다윗에게 뜨거운 눈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유영기 담임목사님과 명암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연구로 인해 목회 철학과 비전을 정립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하여 이 시대적 부름에 더욱 헌신하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이진철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동기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4
제 2 장 교회 공동체의 이해	6
제 1 절 교회 공동체의 성경적 의미	6
1. 교회의 어원적 이해	6
가. 구약의 어원적 이해	7
나. 신약의 어원적 이해	8
2. 성경적 교회 이해	9
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9
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10
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10
라.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11
제 2 절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사회학적 이해	13
1. 삼위일체 하나님과 공동체	14
가. 공동체의 성경적 근거 : 삼위 하나님	14
나. 삼위일체의 코이노니아	15
2. 인간본질로서의 공동체	17
3. 사회학적 공동체 이해	19
4.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	22
5.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내적 요소들	23
제 3 장 소그룹 사역을 통한 교회 공동체성 회복	25
제 1 절 소그룹에 대한 이해	25

1. 소그룹의 정의	25
2. 소그룹의 특성과 역할	27
제 2 절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	29
1. 시대적 상황의 필요성	29
2.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교회	34
3.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소그룹의 필요성	40
제 3 절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운동 사례	44
1. 존 웨슬리와 속회	44
2. 셀 교회	49
제 4 장 소그룹 사역 활성화 전략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 사례연구	56
제 1 절 고양 화평교회	56
1. 교회연혁	56
2. 목회철학과 비전	58
3. 소그룹과 제자훈련 사역	59
제 2 절 평택 대광교회	63
1. 교회연혁	63
2. 소그룹 사역의 특징	63
제 5 장 명암교회의 역사와 목회적 상황	67
제 1 절 명암교회의 역사	67
1. 교회 설립	67
2. 성장 과정	68
가. 발돋움의 시기(1980-1990)	68
나. 부흥과 성장의 시기(1991-2000)	70
다. 성숙의 시기(2001-현재)	72
제 2 절 명암교회의 목회적 상황	74
1. 지역 사회	75

2. 목회적 상황	76
3. 소그룹 사역의 장점과 한계	77
가. 구역 중심의 소그룹	78
나. 전도 중심의 소그룹	80
다. 기도 중심의 소그룹	82
 제 6 장 명암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 전략	84
제 1 절 소그룹 사역을 위한 준비	84
1. 기존 조직과의 균형유지	86
2. 소그룹 중심 사역을 위한 정착과정	89
제 2 절 명암교회의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을 위한 방향	91
1. 전교인의 사역화를 지향하는 소그룹	91
2.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소그룹	94
3. 전도가 활성화 되는 소그룹	96
제 3 절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 위한 구체적 전략	100
1. 소그룹 사역 리더십 개발 전략	100
2. 소그룹 사역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103
 제 7 장 결론	110
 참고 문헌	114
 Vita	118

표 목 차

<표 1> 소그룹(구역, 전도, 기도)에 관한 분석	85
<표 2> 전도 소그룹 모델 운영 계획	104
<표 3> 제자훈련 소그룹 커리큘럼(31주 과정)	107
<표 4> 제자훈련 운영 시간표	10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동기와 목적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우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분열과 다툼, 목회자의 타락, 성도들의 비도덕성,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 사회에 대한 무관심, 세속적인 교회 등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비난과 질책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하는데 교회는 그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도전과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심각한 정도로 침체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원인에는 시대적 상황과 가치관의 변화, 다분화 된 사회체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 창조된 교회가 비공동체적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공동체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개인의 구원과 영성, 물량주의를 동원한 개교회 성장주의와 교파, 교단 간의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이다. 시대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사회의 변화는 영적인 변화에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도자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도 변할 수 없다. 미래 사회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되고, 정보 매체들을 통하여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고,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양적 성장보다는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발상의 전환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 가는 힘도 개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지도자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성경의 본질을 등한시 하다 보니 질적 성장보다는 가시적인 양적 성장에 치중하여 물질주의, 성장주의 등 인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경영 전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도입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과 사회로부터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개신교인의 숫자가 국민의 20퍼센트를 훨씬 넘는 상황이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침체기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대다수의 성도들은 교회의 본질,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준다.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는 나눔과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은 이 시대의 진정한 모델이 된다.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켰다. 초대교회는 피상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으며 진정한 개방형 가족 공동체였고, 통일성과 다양성이 전제되는 한 몸으로서의 유기적 공동체였다. 완벽한 공동체 의식은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고 성도들 사이에 가족적 공동체를 이루었다. 성도들은 진정 하나 되어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였다(행 4:34). 초기 기독교 코이노니아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룬 형제적 나눔의 공동체였다.¹⁾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 알 수 있는 참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이며 유기체로서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 움직여 자신이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 안의 공동체 정신의 결여가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그동안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개인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를 영접한 뒤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경험하려고 하기 보다는 혼자 예배 시간만 참석하고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고 하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러한 실정을 간과한 결과

1)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족교회 (용인: 킹덤북스, 2013), 223.

한국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교회는 심각할 정도로 침체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꺼져가는 부흥의 불길을 다시 살려 한국 사회로부터 신뢰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의 회복이 절실하다. 개인과 개인,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을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연구자는 확신하며 그 대안을 본 논문을 통하여 찾아볼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동체성 회복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쇠퇴와 침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시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교회는 쇠퇴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회의 본질 회복이라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닌, 표면적이며 일회성적인 문제해결로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회의 본질로서의 공동체성 회복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건강한 교회로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소그룹이 많은 장점과 유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그룹은 성도들의 공동체적 삶을 이루는데 있어 기본 단위이며 성도들의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을 향상시킬 수 있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교회 내 다양한 소그룹을 통해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자는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 전략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자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명암교회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소그룹 활성화 전략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성경적인 교회로 건장해지는 길을 찾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성경적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됨을 이루는 공동체이다.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여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재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열망으로 출발한 본 논문은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 전략에 대해서 연구해 나갈 것이다.

본 연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총 7장으로 구성된 본 논문은 1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동기와 목적, 연구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서술한다.

2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이해에 대해서 논의한다. 먼저 교회 공동체의 이해로서의 교회의 어원적 이해와 성경적 교회 이해를 통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확인한다. 신학적·사회학적 이해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본질로서의 공동체, 사회학적 공동체 이해,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내적요소들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교회 소그룹 사역을 통한 교회 공동체성 회복에 대해 서술한다.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으로 소그룹의 정의와 특성 및 역할을 살펴보고 또한 시대적 상황과 현재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교회의 상황, 그리고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소그룹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운동 사례로 존 웨슬리의 속회와 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소그룹 사역 활성화 전략을 통해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교회로 고양 화평교회와 평택 대광교회의 사례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목회하고 있는 명암교회의 역사와 목회적 상황을 진단한다. 이 진단 과정에서 명암교회의 역사와 설립과정과 성장과정,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목회 사역에 나타난 강점과 한계점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소그룹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 한다.

6장에서는 명암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 전략에 대해서 확인한다. 소그룹 사역을 위한 준비와 기존 조직과의 균형유지, 정착과정과 전략연구하고, 소그룹 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할 것이다.

7장 결론에서는 이러한 소그룹 사역 전략이 교회 성장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소그룹 목회 모델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제언을 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제 2 장

교회 공동체의 이해

본 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어원적 이해와 성경적 교회의 이해를 통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확인한다. 신학적 이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공동체성을 근거로 해서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교회 공동체성의 성경적 의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공동체라는 사실은 교회의 어원적 의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공동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회의 어원으로서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살펴봄으로써 교회라는 어원이 공동체성을 함축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어원적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의 불가분의 관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절에서는 교회의 어원과 더불어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나라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1. 교회의 어원적 이해

현대 교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보다는 외형적인 것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교회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게 하는 심각한 현상을 가져온다. 교회가 성경적 교회론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교회론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교회의 어원적 이해를 고찰하고자 한다.

가. 구약의 어원적 이해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명칭이 구약의 70인역에서 유래 되었고, 신구약의 불가분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교회라는 어원적 의미를 구약성서에서 찾을 수 있다.²⁾ 히브리어인 ‘카할’(קהל)과 ‘에다’(עדה)를 번역하여 교회라는 용어를 70인역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카할’은 어떤 집회의 모이는 행위와 관련된 용어로 모임의 구성원들을 가리킨다 기보다는 ‘모임’ 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³⁾ 이 ‘카할’의 의미는 모이는 사람들과 목적에 따라 달라졌는데 원래 백성의 실제적인 모임으로서, 특히 종교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의미한다.⁴⁾

‘카할’은 70인역에서 주로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어 이스라엘인의 모임으로서의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었고, ‘에다’는 ‘쉬나고게’(ἐκκλησία)라는 말로 번역되어 주로 유대인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회당을 의미했다.⁵⁾ 그러나 성경의 용례를 볼 때에 ‘카할 에다’로 함께 쓰여 ‘회중의 모임’으로서 교회의 의미를 함께 나타내기도 한다.⁶⁾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칭하는 ‘카할’과 ‘에다’가 신약의 교회를 지칭하는 ‘에클레시아’와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교회가 ‘카할 에다’에 담겨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 공동체라는 어원적 의미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교회가 근본적으로 공동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

2) 이종성,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19.

3)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23.

4) 문석호, *21C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도서출판 줄과 추, 1998), 67.

5) 김현진, *공동체 신학*, 24.

6) Ibid., 23.

고 있다.

나. 신약의 어원적 이해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와 ‘쉬나고게’를 사용했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라는 헬라어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⁷⁾이라는 기독교적 의미로 변환되어 사용되었다. ‘쉬나고게’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화합이나 공적 예배를 위하여 모인 건물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⁸⁾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에클레시아’는 이미 헬라에선 아주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종교적인 의미는 전혀 없이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나 회합을 지칭하는 단어였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헬라인들이 사용하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면서 그 모임의 성격을 구별하였다.

바울은 ‘에클레시아’란 용어를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또는 정기적인 모임 공동체로서 한 지역 내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때 일관성 있게 사용하였다. 이 사실은 ‘에클레시아’라는 용어의 핵심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모임에 있음을 반증한다.⁹⁾ 바울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첫째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소그룹의 자발적인 공동체이다. 둘째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 공동체의 특성이다. 셋째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가정공동체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초국가적이며 시간에 매여 있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실재로서의 공동체이다.¹⁰⁾

결국 ‘에클레시아’라는 어원적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실재로서의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7) 김현진, *공동체 신학*, 23-24.

8) Ibid., 24.

9) 문석호, *21C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75-77.

10) Robert J.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문, 1999), 76-77.

2. 성경적 교회 이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이해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성경적 이해를 고찰하고자 한다.

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건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 계약을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시내산 계약을 위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¹¹⁾

신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의 교회에는 어떠한 지배구조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성 회복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날 교회 분열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주도권 다툼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의 자기이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공동체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모두가 한 왕을 섬기는 평등한 공동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직자와 평신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과 분열이 해소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11) 김현진, *공동체 신학*, 30-31.

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에 묘사된 공동체의 또 다른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에 대한 가장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바울은 로마서 7:4; 12:5, 고린도전서 12:27, 에베소서 4:12, 골로새서 2:17-19에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칭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또한 교회의 각 지체들 간의 본질적인 통일성을 표현한다.¹²⁾ 바울은 이 개념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구성원들의 관계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는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의 필요성을 알고 상호 존중과 의존, 협력을 통해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실제적이며 유기체적 공동체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한 몸이 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으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¹³⁾

결국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은 교회가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개 지역교회가 모두 하나의 공동체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회 구성원들이 각각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상호의존과 보완을 통해 상호 책임지며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교회에 대하여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성령의 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심으로 성도 개인의 몸은 ‘성령의 전’(고전 6:19)인 것과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고전 3:16)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교통으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다.¹⁴⁾

성령의 기본 사역은 교통 혹은 교제, 사귀의 ‘코이노니아’이다.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라고 할 만한 영적 교통과 사귀는 성령에 의해 수여된 것으로서 인간

12) 문석호, 21C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81.

13) 김현진, 공동체 신학, 37.

14) Ibid. 38.

성의 기능을 뛰어넘는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인 것이다.¹⁵⁾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수직적 코이노니아와 성도들 상호간의 교제인 수평적 코이노니아를 통해 교회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 바로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 사역을 통해 교회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성령이 교회 안에서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코이노니아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성과 함께 일치의 역사이다. 성령은 교회를 그의 전으로 삼아 능력을 주고, 코이노니아의 영을 부여하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¹⁶⁾ 이렇듯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인 것이다.

라.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하나님 나라는 몇 가지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가까운 장래에 올 하나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지배, 통치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올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¹⁷⁾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소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소명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 이 소명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행해야하는 사명의 세계적 성격을 설명한다.¹⁸⁾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한 그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 예수 당시에는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리라는 기대가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었다.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려면 그에 앞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¹⁹⁾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주로 잔치 비유, 특히 혼인 잔치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다

15) Howard A.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99.

16) 김현진, *공동체 신학*, 41-42.

17) G. E. Ladd, *신약신학*, 신성종 외 공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78-79.

18) 남기철, *현대신학해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66.

19)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서울: 두란노서원, 2000), 15.

(마 8:11; 눅 7:29; 마 22:1-14; 눅 14:15-24; 마 25:1-12; 막 14:25; 마 26:29; 눅 22:30). 잔치는 풍요함, 만족, 기쁨, 등을 상징하는데, 예수는 이 잔치가 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묘사했다.²⁰⁾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의 상태, 즉 죽음의 상태에 있게 되었다. 예수는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함으로 풍요로운 음식을 먹고 마시어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묘사한다. 즉,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 신적인 풍요로운 삶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형태나 그 속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이다.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올 것으로 선포한 예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예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을 나타낸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 예수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하나님의 종말적인 통치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사람들 가운데 현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²¹⁾

예수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사역은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사탄의 나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이다. 죄와 그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은 귀신들림과 병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 예수는 이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언한다. 즉 예수의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사역은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을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을 나타내는 예수의 치유는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예수의 치유는 인간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고난으로부터 해방케 하여 온전하게 한다.²²⁾ 즉 개인적인 질병의 치유, 심리적인 영역에서의 치유, 관계에서의 치유, 경

20) 김세운,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03), 55-57.

21) G. R. Beasley-Murray, *예수와 하나님 나라*,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132.

제적인 영역에서의 치유, 그리고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난다. 이러한 치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종말에 가서 모든 악이 심판되고 제거되어 완전한 평화의 상태로 완성될 것이다.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성령의 전으로서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계속해야 한다. 즉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 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교회의 사명이 있다.

이상과 같이 교회 공동체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이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으로 인해 성도들이 참된 공동체성을 갖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이 사실을 살펴보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본성을 살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제 2 절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사회학적 이해

교회 공동체의 성경적 의미와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본질에 그 기원을 둔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 역시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서로를 존중하며 자발적으로 신적인 활동을 하

22)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122.

며 상호 신뢰하고 의지하는 유기체 존재이다.²³⁾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성과 상호 관계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방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이해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삼위일체 하나님과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가 만드신 공동체 안에 인간을 두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근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공동체성을 살피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가. 공동체의 성경적 근거: 삼위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서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공동체의 실제적인 출발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동체의 시초는 오순절 성령강림 이전에 삼위일체에서 찾을 수 있다.

삼위일체론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면서 삼위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요, 인간이시요,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공유한다. 그리고 성령은 생명의 주요 창조자로서 성부와 함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진정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서로를 존중하면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사랑 안에서 전폭적으로 상호 신뢰하며 서로를 의지하는 유기체적인 존재로 계신다.²⁴⁾ 아우구스티누스 한 분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세 가지 관계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 관계성은 삼위 중 어느 한 분도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세 분은 다 같이 상호관계 안에서만 존재 한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 공동체의 상호 교제는 하나님과

23)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족교회*, 236-237.

24) Ibid., 237.

인간의 코이노니아와(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6-27) 인간과 인간의 코이노니아의 근거와 모본을 제시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창 2:24)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를 자신 안에 들어오도록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공동체적 하나님으로 살아가신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완전히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비유처럼 유기적인 상호의 존적인 존재로 사신다.²⁵⁾

이처럼 삼위 하나님 앞에서 상호의존적이 되고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정신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사실상 삼위일체 교리가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사변적 교리로 이해되고 있어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무관하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오늘날 공동체성이 상실된 교회에 커다란 의미를 줄 뿐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가야 할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나. 삼위일체의 코이노니아

삼위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는 삼위 하나님 사이의 코이노니아를 의미 한다. 성령의 본격적인 코이노니아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삼위 하나님간의 교제는 창세전부터 존재했다.

창세기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함께 의논하는 협의체로서의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다. 창조 사역 시, 인간을 지으실 때도 서로 역할 분담을 하셔서 창조하셨다(창 1:1-2, 26). 특히 구원 사역 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엡 1:4-6),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

25)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족교회, 251.

라 우리를 피 흘려 구속하셔서 죄 사함을 주셨고(엡 1:7),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다(엡 1:13-14).²⁶⁾

이러한 삼위 하나님 사이의 코이노니아는 이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코이노니아로 발전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 된 공동체이듯이 이를 따라 사람들 역시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셨다.²⁷⁾

그의 백성 된 인간이 삼위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차원에서처럼 무엇보다 간절한 기대이며 소망이었다. 성부는 권위자가 아니라 성자와 성령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 하신다. 성자는 그 위치를 성부에게 드리 기 위함이다. 성부는 성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성자는 성령이 되려 하지 않는다. 성령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의 뜻을 드러낸다. 각각 그 역할을 감당하 시는 것이다.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봉사한다.

삼위 하나님은 각각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섬기는 모습을 보여 준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위해,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위해,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신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각 위격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식을 지닌 인격체로 완벽한 하나의 삶을 이룬다. 하지만 서방신학은 하나의 하나님이 더 중심이 되었고, 동방신학은 세 위격을 더 분명히 하려고 했기에 서로 화해하기 힘들었다. 그런 주후 8세기 다마스쿠의 요한이 양쪽을 아우르는 개념을 도입했다. 그것이 페리코레시스, 즉 침투 혹은 순환개념이다. 이 개념은 서로의 생각과 의지가 침투되고, 각각의 생각과 의지를 상호 주고받음으로써 순환하게 되어 성부의 생각은 성자와 성령 안에, 성자의 생각은 성부와 성령 안에, 성령의 생각은 성부와 성자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²⁸⁾

기독교의 섬김 사역은 성 삼위의 본성과 같이 서로 사귀고 섬김의 모습 속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표본을 제공하며, 인간의 공동체 속에 투영될 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간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자신의 코이노니아 역사로 공동체로 살아가고 공동체를 섬기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에게

26) 오정현, “창조력 있는 사역은 팀 사역에서 나온다”, *목회와 신학*, 1995년 9월호, 61.

27) 김현진, *공동체 신학*, 53-54.

28)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족교회*, 249.

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의 관계를 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²⁹⁾

2. 인간본질로서의 공동체

성경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창세기 1:26-27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는 인간 창조기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 즉 복수의 공동체로 창조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삼위이면서 페리코레시스적 공동체로서 하나를 이루셨듯이 인간 역시도 복수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페리코레시스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진정한 교제 가운데 있는 인격들로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진정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내적으로는 신적 인격들 사이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는 우주 안의 모든 피조물로 확산된다.³⁰⁾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역시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로 창조된 것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독처하는 것을 보시면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창2:18)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 공동체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이지만, 혼자인 아담은 공동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홀로 있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구현할 수 없었고, 그렇기에 완전한 인간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사람을 창조하셔야만

29)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족교회*, 61-63.

30) 이문균, “삼위일체 신관에서 본 교회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03년 30집, 274-275.

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단수가 아닌 복수, 즉 공동체적 인간을 완성하신 것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인간의 창조기사는 인간이 관계적 존재요 사회적 존재이며 공동체적 존재임을 증거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독립적 존재가 아닌 관계적 존재인 것이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 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적이며 불가분리의 공동체적 존재인 것이다.

특히 인간이 남자와 여자, 즉 부부라는 형식의 한 몸이 되는 공동체의 원형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페리코레스시스적 공동체성이 간접적으로 계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권문상교수는 인간이 부부라는 복수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간접적으로 계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두 사람이지만 한 몸으로 창조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의 삶이 곧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복수성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이라 할, 그분의 공동체적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³¹⁾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간에 상대방의 생각, 의지를 주고받는 것이다. 상대방의 사랑 안에서 깊은 교통을 호혜적으로 나눔으로써, 혹은 상호 간에 침투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부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공동체의 본질적 모습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에 상호 침투, 혹은 교류, 순환을 통해 각 위격들의 생각, 의지, 행동을 주고받으며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페리코레스시스적 공동체성인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페리코레스시스적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본질적으로 인간은 페리코레스시스적 공동체로 살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사랑 안에서 상호 의존하며, 돕고, 교통하는 페리코레스시스적 공동체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에 다스리고 군림하려는 지배구조를 정립하게 되었다. 길버트 빌지키언(Gilbert Bilezikian)은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 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의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고

31) 권문상,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공동체성”, *개혁신학*, 18집, 2005, 212.

있다.³²⁾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훼손된 인간의 공동체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옛 공동체의 잔해로부터 새 공동체를 창출하실 계획을 실행시키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를 염원하셨는데, 이는 동시에 인류를 공동체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염원이기도 하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라는 기도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페리코레스시스적 공동체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 되게 해 달라는 기도이다.

또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주요한 목적임을 밝히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류에게 공동체성 회복을 이룰 길을 열어주셨다. 바로 그 열매가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로 나타났고, 또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³³⁾

이처럼 교회는 타락 이후 훼손된 인간 본질로서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돕는 페리코레스시스적 공동체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다.

3. 사회학적 공동체 이해

일반 사회학적 관점의 공동체라는 말은 라틴어로는 *Communitas*, 영어로는 *Community* 라고 쓰여지며, *Common* (공동의), *Communal* (공공의, 자치적인)이라는 형용사 또는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라는 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공동체는 지리적 근접성(지역성)과 사회적 단일성(공동의식) 그리고 문화적 동일성(공동규범)을 가지는 공동 사회적 집단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는 동질성을 가진 일정한 인구가 자연적 생태적 지리적으로 한정되고 근접한 지역에 살면서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

32)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2002), 31.

33)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족교회*, 215-216.

고 공통의 가치판단과 생활 방식을 갖고 많은 경우 협동생활을 이루는 모임이다.³⁴⁾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사용되는 공동체라는 용어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으로 시작해서 동료집단, 지역사회까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의 의미는 사회적 상황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데, 이는 공동체가 인간의 생존방식이자 삶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이다.³⁵⁾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갈망한다. 그 관계 가운데 보고 듣고 느끼며 성숙해 나가려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독일의 사회학자인 퇴니스도 동의하고 있다. 그는 그의 저서,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1887)에서 인간의 유대관계를 자연의지와 합리의지로 구분한다.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게마인샤프트적 관계는 부자, 친지, 친구와 같이 혈통과 우정으로 엮어진 것이고 게젤샤프트적 관계는 계약적이고 사무적인 관료계급 또는 현금 거래의 타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³⁶⁾

퇴니스는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공동체인 것을 인간의 ‘본연의지’ 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러한 본연 의지는 어떠한 사회 변동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잠재적 욕구로서 늘 인간 내면에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³⁷⁾ 퇴니스가 말하는 본연 의지는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공동체임을 밝히는 것이며, 게마인샤프트적 관계는 존재론적으로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간의 의지를 잘 표현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목적에 따른 것일 뿐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더욱 추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공동체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한 행위일 뿐인 것이다.³⁸⁾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는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있다. 올바른 공동체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권리가 말살되는 곳이 아니다. 개인은 공동체

34) 이원규, *종교사회학: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194-195.

35)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2001), 22-23.

36) 이원규, *종교사회학: 이론과 실제*, 197-199.

37)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족교회*, 178.

38) Ibid., 179.

안에 존재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활동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도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개인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실을 본회퍼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정의하고 몰트만은 “타자와 더불어 있는 존재”라고 주장한다.³⁹⁾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도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자아의 실현도 개인 자유의 보장도 개인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⁴⁰⁾ 비록 자유주의자들이 공동체에 대해 부족한 인식을 나타냈을지라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다.

공동체란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소규모의 자치적 집단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공동의 운명에 영향을 받는 개체이다.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자치체이기 때문에 지배자가 존재하는 사회계약론에서 말하는 사회집단과는 다른 모임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라는 용어 속에는 유토피아적 이미지가 포함된다.⁴¹⁾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경쟁적 시장원리가 사회에 적용되면서 전통적 상부상조의 관계들은 경쟁과 투쟁의 관계로 바뀌어갔다. 인간의 존재마저 물질가치로 환원시키며 비인간화와 분업 및 전문화로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시킨 것이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준 산업화의 대가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경험하면서 많은 이들은 유토피아적인 공동체에 대한 환상이 아닌 스스로 구현해 나가야 하는 현실세계의 목표로 공동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바램은 물질문명의 대가로 치르게 된 인간소외에 대한 깊은 반성, 물질이 인간의 존재를 능가할 수 없다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⁴²⁾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보다 삶의 질에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소외되었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간의 존재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39) 박봉배 외, *기독교윤리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9.

40)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족교회*, 180.

41) 남경태, *개념어 사전* (과주: 들녘, 2006), 39-40.

42)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19-21.

서 공동체는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삶의 장, 인간이 다시 세워야 하는 이상세계로 여겨지고 있다.⁴³⁾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는 참된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하고 삶을 통해 보여줄 책임을 가진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책임을 온전히 다하기 위해 공동체 교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와 이웃,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장소로서의 공동체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한다.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내의 관계 가운데 가시화되고 확증된다.

4.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

교회는 이 세상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고치기 위해 부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 일을 위하여 위탁된 진리 역시 구성원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위탁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경험은 개인적이지만 교회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회에 미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산상수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교훈은 이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마 5:13-14).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지 세상을 위해 긍정적인 어떤 봉사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이라기보다는 ‘현존’에 관한 가르침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이며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의 선교 경험이 입증해 준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이 교훈은 도달할 가능성이 없이 목표에 대한 프로그램적인 비전 제시가 아니다. 교회의 이상은 이 땅의 육체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43)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19-21.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도 그러한 이상과 관계되어 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이상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⁴⁴⁾

5.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내적 요소들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 본질과 특성에 비추어서 세 가지 내적인 요소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공유된 생명을 누리는 교회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⁴⁵⁾

첫째는 ‘하나 됨’의 의미이다(롬 12:4-5). 인간의 몸이 따로 존재할 수 없듯이 몸으로서의 교회는 각 지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한다. 교회가 하나 된 사실은 그 머리에 굳게 붙어 있는 일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됨을 통하여 통일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 됨은 합일성을 의미한다. 신약에 등장하는 공동체적 합일성은 일차적으로 교회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합일성에 대해 관심과 소망을 표명하였고(요 10:16), 무엇보다도 대제사장적 기도 시에 그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께 간구하셨다.(요 17:11, 21-23). 이러한 하나 됨의 정신이 오순절을 경험하며 첫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모임, 마음, 기도, 그리고 나눔에 있어서 합일성의 원리를 실행해 내었다.

신약에서의 합일성은 구약에서처럼 외형적, 제도적 양상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훨씬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특징이 강조된다. 합일성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적 이상을 반영한다.

둘째로, ‘다양성’의 의미로서 몸은 각 지체뿐 아니라 여러 다른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 여러 지체가 분명 다르다. 기능이나 그 몸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의 연합체로 존재하면서도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진다. 다른 지체들의 기여도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고전 12:21).

셋째는 ‘상호성’의 의미이다. 따로 존재하는 각 지체들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서로가 돕고 도움을 받아야 생명을 공유한다. 몸 된 교회는 혼자 떨어져 있는 개

44) 김남준, “목회적 관점으로 본 교회의 공동체성”, *목회와 신학*, 1999년 4월호 74-76.

45) John MacArthur,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한화릉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9), 3-19.

인이란 없다. 서로 사랑어린 관심을 필요로 하고 서로 삶 속에서 서로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상호성이다.

공동체 내에서 혹은 공동체끼리의 상호보완성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 나타나고 또 이루어진다. 송인규는 여섯 가지 측면-높은 자가 낮은 자로 자처하고 낮은 자를 높이고,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지도자급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신을 형제라고 낮추어 표현하는 등의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개념, 세리, 창기, 고아와 과부 등의 ‘사회적 소외층에 대한 관심’, 즐거움과 슬픔에 ‘동참하려는 자세와 의지’, 지체사이의 은사와 직임, 활동에 대한 ‘다양성과 전문성’, 공동체 구성원 개인이나 구성 그룹 사이의 ‘평등성’, ‘서로서로 의식’,-에서 상호보완성을 설명한다.⁴⁶⁾

이렇게 공동체의 상호보완성은 높은 자와 낮은 자 간의 상호자세, 사회적 소외층에 대한 관심, 동참의식, 다양성, 평등성, ‘서로서로’ 관계를 통해서 유지되고 발전되며 또 반영되는 법이다.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근거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교회가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형태의 공동체 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인간본질로서의 공동체, 사회학적 공동체 이해, 교회 공동체의 존재이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내적요소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장에서는 한국교회가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으로 소그룹에 대한 이해로 소그룹의 정의와 특성 및 역할을 살펴보고 또한 시대적 상황과 현재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교회의 상황, 그리고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소그룹의 필요성과 교회사에 나타난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46)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45-60.

제 3 장

소그룹 사역을 통한 교회 공동체성 회복

앞 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어원적, 성경적, 신학적, 사회학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소그룹에 대한 이해와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과 교회사에 나타난 주요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1절 소그룹에 대한 이해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소그룹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함께 할 때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면서 더 많은 소그룹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간다. 교회 역시 하나의 공동체이며 이러한 공동체 속에는 많은 소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며,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과 함께 삶을 나눈다는 것이다.

소그룹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소속감이 있고 공통의 목적을 추구한다. 이러한 소그룹은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소그룹의 정의 및 소그룹의 특성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은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강화하고 실현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그룹이 존재하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 할 수

있기에 소그룹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며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두 세 사람을 임의로 모아 놓았다고 해서 소그룹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자연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경우가 곧 소그룹이 되는 것도 아니다.

명성훈은 “교회속의 교회”라고 소그룹을 정의하고 있다.⁴⁷⁾ 또한 정웅섭은 다음과 같이 소그룹을 정의했다.

소그룹이란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과제를 이루려고 모인 몇 사람의 인원으로 구성된 집합체로서 그 안에서 각 멤버는 어떤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고 인간적인 느낌과 태도에 의해 영향 받으면서 밖의 사람들보다는 멤버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과제를 풀어나가는 모임체이다.⁴⁸⁾

육한흠은 “소그룹이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환경”이라고 말한다.⁴⁹⁾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실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소그룹이란 단순히 숫자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 소그룹은 서로의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목적 하에 조직화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상호의존하며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활동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소그룹의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3-12명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 인원이 12명을 넘어서게 되면 모든 사람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소그룹은 역동성을 잃기 시작한다. 예수님도 12명을 제자로 택하시고 그들에게만 집중하셨다.

결론적 정의하면, 소그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모인 3-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지지해주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여 나눔과 섬김, 기도와 친교, 치유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임이다.

47) 명성훈,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5), 35.

48) 정웅섭, “그룹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 1980년 6월호, 35.

49) 육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239.

2. 소그룹의 특성과 역할

소그룹이 가지는 특성은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과 성격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권문상은 소그룹 자체가 자발성과 관계성을 기초로 하는 하나의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그룹은 공동체가 갖는 특성을 똑같이 공유한다고 말한다. 그런 공동체가 갖는 특성에 대해 진정한 공동체는 구성원 스스로의 행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자발성과 구성원들 개개인이 갖는 독특성이 하나의 소그룹 안에서 어우러져있는 ‘다양성’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의존적이고 공동체는 그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⁵⁰⁾

명성훈은 소그룹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⁵¹⁾ 첫째, 모든 부분에 예수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따르며, 닮아가는 도구이다. 따라서 소그룹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를 닮아가는 것이 소그룹의 첫 번째 역할이다.

둘째, 삶의 변화이다. 소그룹은 역동성을 지닌 유기적인 조직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변화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소그룹은 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변화한다.

셋째, 리더십의 재발견이다. 소그룹은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지도자로 세움으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사역의 역할을 감당한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어떤 측면으로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평신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소그룹의 재확성화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소그룹은 건강한 성장과 증식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소그룹은 작은 기초 생명체이다. 그래서 끊임없는 세포분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야 하고 증식되어야 하며, 증식되지 않는 생명체는 죽은 생명체이므로 제거되거나 재확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끝없이 퍼지는 원과 같다. 교회가 밖으로 시선을 돌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족시킬 때 영적으로 발전되고, 수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⁵²⁾ 즉 소그룹의 성장과 증식은 제도가 아니라 교회 활동의 기본

50)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족교회*, 186-195.

51) 명성훈, *부흥뱅크* (서울: 규장문화사, 1999), 293-294.

52) William M. Easum, *교회성장 핸드북*, 안승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21-22.

법칙이다.

다섯째,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소그룹은 긴밀한 영적 체험을 통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고 일하신다. 그리고 소그룹 구성원들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령이 교통하신다. 그런 점에서 소그룹은 성령을 체험하고 진정한 성령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김남용은 “소그룹에는 사랑과 돌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고 한다⁵³⁾. 소그룹에서 깊이 있는 사귄을 갖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각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함께 채워 나감을 뜻한다. 또 소그룹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서 회복되는 곳이 될 수 있다.

소그룹에서는 교통 중에 있는 구성원들이 받아들여지고 평안함을 누린다. 그리고 유기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⁵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은 각각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사역함으로써 자신과 전체 몸의 성장을 이루어간다(엡 4:15-16). 소그룹은 구성원들을 성장시키며, 동시에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해 간다.

소그룹은 성장을 위한 모임이다. 구성원들의 연약한 믿음의 상태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도록 돕는 곳이 소그룹이다.⁵⁵⁾ 소그룹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확대가족이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본 단위이다. 구성원들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필요를 돌보며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⁵⁶⁾

지금까지 소그룹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즉 소그룹의 정의와 또한 소그룹이 가지는 특성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소그룹은 자발적으로 모인 3-12명 정도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지지해주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여 나눔과 섬김, 기도와 친교, 치유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임이다.

이런 소그룹 안에는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다양성, 구성원들이 서로 깊은 신뢰 관

53)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서울: 멘토, 2002), 47.

54) Ibid., 93.

55)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19-20.

56) Ralph W. Neighbour, Jr.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123.

계 가운데 의지가 되는 상호의존성, 그리고 모든 소그룹 행위에 기반이 되는 신뢰 등의 공동체적 특성과 함께 사랑, 돌봄, 회복과 치유, 그리고 성장과 같은 특성들이 있음을 보았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특성과 역할을 가진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제 2 절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가장 적절한 목회 전략은 소그룹 사역이다. 소그룹 사역은 성경적이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절에서는 이런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소그룹은 시대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로 회복하는데 있어서 소그룹이 갖는 유용성이 있다. 또한 목회 현장에서 효과적인 사역의 방법으로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을 갖는다.

1. 시대적 상황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 사회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산업화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미래 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사람들이 “물질과 과학 만능 세계를 대변하는 과거 산업 사회에 대한 증오감을 갖게 되고, 나름대로 신성하고 영적인 세계를 찾고자 하는 새로운 종교적 열광 현상이 따를 것”⁵⁷⁾이라고 말함으로서 종교에 대한 열광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측했다.

급격한 사회 변동은 가치관의 혼란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도덕적 가치가 확립되지 못하면서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가 한국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만연되었다.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적 복지와 평화보다 개인적, 집단적 이익과 안일을 우선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⁵⁸⁾ 이러한 이기주의는 극단적 개인주의와 책임의식을 결여한 과소비 성향 등으로 표출되어서 경제적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57) Alvin Toffler, 제 3의 물결, 김진욱 역 (서울: 범우사, 1992), 142.

58) 이숙중,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101.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한국 가정들은 핵가족화 되었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지나친 관심 속에 자라난 이들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의존적이기 쉬워졌으며 개인주의적 행동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 커졌다.⁵⁹⁾ 이러한 이중적인 면으로 인해 많은 현대인들이 어디에서도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현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회의식과 연대감이 쇠퇴함에 따라서 신앙의 부재와 영적인 약화가 더해졌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새 문화’ 혹은 ‘반문화’ 현상이 생겨났으며, 결국 현대 사회는 공동체 의식과 인간관계를 발견할 수 없는 분산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분산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인격과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⁶⁰⁾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린 채 개인주의 성향만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은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도한 소비 지향적 행태 속에서 이러한 극단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들과 특징적인 형태들이 변화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인간 행동에 대한 도덕적 해석이 임의적 해석, 상황 윤리로 대체되었다. 노동과 생산을 중요하게 여겼던 전통적인 가치는 향락과 소비 지향적 가치로 변했다.⁶¹⁾ 소비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행위이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잘못 행해지는 소비주의는 불균형의 압박 관념을 낳게 되고 공동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소비주의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단순한 소비의 행태에 있지 않다. 그 안에 담긴 ‘책임을 무시하는 권리’의 행사가 문제를 일으킨다.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는 개인의 권리 추구가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짓누른다.⁶²⁾ 이러한 잘못된 소비주의는 빈부의 격차를 가시화하고 인간의 존엄성보다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비인간화를 조장한다.

59) Jimmy Long, *소그룹 리더핸드북*, IVF 자료개발부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16.

60) 이숙중,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55.

61) Ibid., 61-62.

62) Randy Frazee, *21세기 교회 연구 : 공동체*,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3), 194.

개인주의와 잘못된 소비주의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갈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 한국이 다민족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각된 노인문제 그리고 산업화, 관료화로 인해 야기된 비인간화와 노사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국제결혼, 유학, 여행, 그리고 취업 등으로 인해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민자 수의 증가와 한국사회의 다민족사회로의 진행은 21세기 세계화와 더불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⁶³⁾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여전히 한민족에 대한 고집과 폐쇄성을 지니고 있다. 한민족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와의 ‘다름’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많은 국내 체류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혼혈인들은 직, 간접적인 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노인은 역할 상실로 인한 심리적 좌절감을 경험한다. 특히 퇴직을 하고나서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던 자신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주변부로 내몰리는 느낌을 갖게 되고 자녀들의 성장과 출가, 친구와 배우자의 사별을 경험하면서 깊은 고독과 소외감을 느낀다.

또한, 조기은퇴, 미흡한 연금제도, 자녀양육비의 과다지출 등으로 인해 노후대책을 충분히 하지 못한 노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늙어지면서 건강도 커다란 문제로 다가온다.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받고 집안에서의 역할도 더욱 약화된다.⁶⁴⁾

이제 소수가 아닌 다수의 노인이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 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러한 노인 문제는 전 사회적인 대안을 필요로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외국인이나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현대 사회에는 노동의 분업과 경제, 산업 구조의 전문화의 영향으로 관료제도가 형성되었다. 다원화된 사회 조직의 기능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료제도는 획일적인 계급제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63) 박찬식, 이우성, *2020프로젝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31-32.

64) 이원규, *한국 사회 문제와 교회 공동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08-111.

관료제도가 전문화된 사회와 노동의 분업으로 발달된 다양한 사회 분야들을 통제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었지만, 제도의 특성상 경직된 종속 관계와 사회기능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의 비인간화와 인간성의 상실과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관료제도에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권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들의 독점적 권한이 되어버려서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⁶⁵⁾ 이렇게 산업화 이후 한국 사회 속에서 많은 이들이 능률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존엄성을 평가 절하 받으며 소외와 차별로 인한 아픔을 견디며 살아왔다.

이 시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수많은 기계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부속품처럼 여겨져서 진정한 자유와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물질의 풍요로움은 얻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사회가 과학기술이 발달해 감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 가치로 두게 되고, 이에 따라 부의 집중현상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심해진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소외감과 외로움은 커져가고 있다.⁶⁶⁾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전해 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게 주어진 과학문명은 인간복지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과학문명으로 인해 인간영혼은 황폐해지고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이 현대문명의 이기 속에서 죽어가는 문명의 ‘자폐아’로 만들어 갈 것이다.⁶⁷⁾

과학 기술의 발달, 합리주의 사고, 정치와 경제의 발달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속화 시켰으며, 이로 인해 사회전반의 공동체가 무너졌다. 그리고 인구 이동을 동반한 도시화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질화되었으며, 사회 결속력도 점차 작아졌다. 사회 구성원들은 조직 구조의 거대화와 관료주의화로 인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대부분 비인격

65) 이숙중,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58-59.

66) 박찬식, 이우성, *2020프로젝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152-153.

67) Ibid., 7.

적인 관계에 머물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성과 인격의 상호성은 약해지고 소외와 고독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⁶⁸⁾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소외와 고독의 문제를 해결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전문화, 다양화, 이질화되는 빠른 변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 목회자가 홀로 효과적으로 반응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유사한 경험과 삶의 정황에 있는 코어그룹이 서로를 격려, 지지, 지원해주는 것이 절실하다. 많은 이들이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의미 있고 정기적인 관계의 혜택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현시대는 관계를 갈망하는 시대이다.⁶⁹⁾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개인의 가치가 인정되는 진실된 관계이다. 진정한 공동체는 이러한 관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대 속에서는 그러한 진실된 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 같은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참여를 통해 유기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다양한 소그룹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소그룹은 과연 오늘날 우리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얼마만큼 필요한 구조인가? 그것은 아무리 소그룹의 구조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과 연계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생활구조는 대형화구조이다. 따라서 개인화, 비인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보다 더 친밀한 인간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는 대형화 구조 속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원한다. 그것은 많은 인원보다 적은 인원일수록 서로를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대형 교회는 주일에 누가 내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른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 몸의 지체가 다른 지체를 모를 수 있는가? 그 몸이

68) 박영신, 정재영,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서울: 한들, 2007), 266-267.

69) Andy Stanley &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이종순 역 (서울: 디모데, 2006), 24.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대형화 되는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에 대안이 있다면 교회 구조를 소그룹으로 바꾸는 것이다.

소그룹은 소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화된 현대인들에게 거부감이 없으며 교회적으로도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이 가능하기에 소그룹 사역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교회적 차원에서의 대안이 소그룹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소그룹 모임은 고독한 현대인들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다. 흔히 현대인들을 가리켜 ‘군중속의 고독’이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비대해가는 세상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고, 소그룹은 그런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는 인간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다.⁷⁰⁾

변화하는 시대와 현대인의 종교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교회도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 변화는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함이고 한국 교회가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함이다. 그런 변화에 따르는 대안으로 소그룹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2.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교회

앞에서 살펴 본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변화와 문제들은 기본적인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차적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타락한 영적, 도덕적 문제들로 인해 인간소외와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영적, 도덕적 문제를 담당해야하는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책임이 있다.⁷¹⁾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감당해낼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보이는 세상에 참된 공동체란 이런 곳이라고 당당히 우리의 교회를 내보이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참된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 교회 안에

70) 육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240-241.

71) 임성빈,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7), 10-11.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이승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⁷²⁾ 첫째, 성경에 충실하지 않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영육 이원론이 한국 교회에 고착되었으며 그로인해 성속 이원론적 사고가 성도의 삶 속에 드러난다. 둘째, 개교회주의가 강화되었다. 셋째, 목사직 세습이 교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넷째, 교회 재정의 비합리적 사용과 불투명의 문제이다. 다섯째, 물질과 부에 대한 바르지 못한 견해의 등장이다. 여섯째, 교회 내의 바르지 않은 인간관계의 문제이다. 일곱째, 교회 안에서 특정 집단에게 권력이 편중되어 있는 문제이다. 여덟째, 사회 전반과 문화 일반에 대해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한국 교회가 갖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한국 무속신앙과 유교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며, 산업화의 영향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도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용시키고, 성장 제일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한국인의 심성을 오랜 시간 지배해 온 것은 한국 무속신앙이다. 무당종교는 현실성, 의존성, 기복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한국 무교는 의타성, 보수성, 현실성, 오락성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무교적 특징들은 한국 교회의 특징적 요소로 흡수되었고 이후 한국 교회의 비판의 요소가 되었다. 무당종교의 특징은 한국 교회가 현실주의적 사고를 하게 만들었고, 기복적이며 의존적인 성격을 갖게 하였다. 한국 교인들이 목회자와 리더들에게 갖는 의존성은 한국 토속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생성된 병리현상이다.⁷³⁾

한국 교회는 무속신앙에 의한 병리현상에 더하여 유교적 가치에 물들어 있다. 유교는 효(孝)사상을 인간관계의 핵심으로 보고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를 가부장적 위계 구도로 규정한다. 유교는 가족 중심적 세계관을 체계화, 규범화하여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만들었다.

이러한 생각을 사회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내 가족과 같은 집단을 형성하여 폐쇄

72)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사회와 교회* (서울: SFC출판부, 2005), 289-290.

73)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54-55.

적 가족을 구성하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이고 계급주의적인 위계 문화, 서열 문화, 학벌 문화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교의 폐쇄적 가족주의는 권위주의적 수직 윤리를 기반으로 하여 반공동체적 패거리 문화를 만들었다. 유교가 만들어낸 폐쇄적 공동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그 악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 것도 바로 폐쇄적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배타적 이익 집단이다.⁷⁴⁾

한국 교회는 1960-1970년대의 산업화를 거치면서 국가 근대화 및 산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1,000만 성도라는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풍요해진 경제와 다양화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교회의 성장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한국 교회는 다원화되고 물질주의화된 사회에 대해 사회적, 영적 지도력 및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⁷⁵⁾ 그러면서 교회 내 많은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은 한동안 성장주의에 정신이 팔려 잊어버리고 있었던 교회의 중요한 요소와 성장주의 때문에 일어난 부작용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개인중심, 개교회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개교회주의는 교회운영의 기본적인 원리로서 한국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교회 내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교회주의는 독립성과 성장을 위한 경쟁성을 지니고 있기에 한국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감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교회중심의 지나친 경쟁으로 말미암아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버리는 목적전치현상을 가져온다. 그래서 주로 개교회의 예산 확대와 시설 확장에 관심을 집중하고 복음 선포, 성도들을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 건설, 그리고 교회 간의 연합과 단결에 무관심하게 만든다.⁷⁶⁾

현대 사회는 합리성과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적 경향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겪었고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생활양식이 개인주의화 되었으며 세속 물질주의 가치관

74)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족교회*, 151-153

75) 박찬식, 이우성, *2020프로젝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23.

76) 문석호, *21c 한국교회와 공동체운동*, 47-48.

에 의해 성공 제일주의가 확대되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적 요소를 강조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회 변화에 편승하여 번영의 신학을 중심으로 교회성장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개교회 만능주의와 개인 축복의 장으로서의 교회만을 강조하였다.⁷⁷⁾ 교회 성장만을 지상과제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신학은 결과만 좋으면 옳은 것이라는 실용주의적인 결과 중심의 접근법을 많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파시켰다.⁷⁸⁾

개교회주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심을 교회 내부에 한정시키고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킨다. 이로써 세상에 건강한 도덕과 성경적 가치관을 제공해야 하는 교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도덕적 설교는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을 가지는 추상적인 원론에 머무르게 된다.

개교회주의는 목회자와 성도가 가진 개인주의가 교회로 확장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교회들, 교단,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교회들의 연합이 힘들어 질수록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이 심해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은 약화된다.⁷⁹⁾

오늘날 교회는 자본주의적 가치관 - 물량주의, 성장 제일주의, 무한 경쟁주의, 상업주의 - 에 물들어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수적인 성장을 이루면,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어떤 기독교적이지 못한 부분이 드러날 지라도 면죄부를 받는다. 성장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자본주의적 가치들은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에서 벗어난 부분들이 많다.⁸⁰⁾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한 가장 큰 악영향 가운데 하나가 물량주의이다. 물량주의의 영향으로 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성도 수, 교회 건물의 크기, 연간 예산의 크기 등과 같은 양적인 것을 기준 삼아서 목회의 성공 여부를 평가한다. 물량주의는 복음의 확장보다 교회 조직의 확장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고, 한국교회에 도덕성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⁸¹⁾

77) 문석호, 21c 한국교회와 공동체운동, 13-14.

78) Kenneth O. Gangel, *최강의 팀워크를 만드는 전략노트*, 김창동 역 (서울: 디모데, 2003), 229.

79) 임성빈,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 26-27.

80) 이문장, “왜 한국에서의 기독교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나”, *목회와 신학*, 2004년 10월호, 62-63.

교회에서도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교회에 들여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내부적으로도 도덕성의 문제로 공동체성이 파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성장을 나타내는 숫자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섬기기보다 수적인 성장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보다 자신들의 개인 왕국을 세우는 데에 걸려 더 큰 왕국에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일'에만 열중하는 잘못을 범한다.⁸²⁾

물론 어떤 개인이나 그룹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실질적인 사역에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역에 성공한 후에는 성취감을 느끼며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성취감과 책임감이 가중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부터 벗어나서 점점 사역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사역 자체를 비전삼아 일을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역을 위한 사역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얻어지는 기쁨을 대신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봉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대신하게 된다.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역과 그 사역 가운데 허락되는 기쁨과 사랑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게 된다.⁸³⁾

목적전치 현상이 교회에도 사역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교회에 목적전치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속 신앙으로부터 기인된 기복 신앙, 유교로 인한 폐쇄적 가족주의와 개교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적 사고로 인한 성장제일주의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시장경제의 논리가 들어왔다. 시장경제에서는 잠재적인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그것에 적합한 상품을 만들고,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그 상품을 팔아서 이득을 남겨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도 이와

81) 임성빈,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 22-23.

82) Kenneth O. Gangel, *최강의 팀워크를 만드는 전략노트*, 21.

83) 유성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 (서울: 평단문화사, 2011), 220-221.

같은 방법과 논리를 적용해서 잠재적인 성도들을 불러 모았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겠다는 열정이 앞서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우기보다는 보다 많은 개종자를 얻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 개종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마 28:18-20). 오늘날 교회는 가시적인 필요 욕구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⁸⁴⁾

많은 한국 성도들이 대형 교회가 가지는 익명성 때문에 소형 교회보다는 대형 교회를 선호한다. 많은 성도들이 소형 교회가 보이는 성도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고 성도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책임도 회피하려는 마음에서 대형 교회를 찾는 것이다. 대형 교회의 익명성은 개인으로서의 성도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만들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책임성을 결여시킨다.

대형 교회가 가지는 익명성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능하게 했지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바라는 교회의 선교, 봉사적 기능이 작아지게 되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한국 교회는 개교회의 성장에 온 힘을 기울여 큰 성장을 이루어 냈다. 반면, 사회적 책임에 충분한 힘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불신자들은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⁸⁵⁾ 교회가 한국 사회의 문화와 도덕적 기준을 선도해 나갔던 시대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불신자들은 교회가 선을 행한다고 하여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교회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문제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버리지 못하고 그 흐름에 편승하여 교회의 본연의 모습,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정체성과 복음의 본질에 대한 위기이다. 이제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섬김과 나눔의 가치들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사회의 흐름 속에 섞여서 흘러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초대 교회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경험하였던 교회의 공동체적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한국 교회는 근대화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지만, 교회의 대형화에 따른 내부 빈곤감은 더

84) E. Glenn Wagner,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73-75.

85)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48-49.

욱 커져가고 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보다는 교인수와 재정을 늘이고 건물을 크게 짓는 데에 열심을 낸 결과, 공동체로서의 교회관과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 못해 교회의 공동체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⁸⁶⁾ 세상은 개인주의, 물질만능의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하고 있다.

오늘날 시대가 절실히 원하는 것은 초대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한 교회이다. 교회에서 믿음과 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삶을 체험한 성도들이 물질만능의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한다. 초대 교회와 같은 공동체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이 되어주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한국 교회가 초대 교회와 같은 공동체로 회복됨에 있어서 소그룹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소그룹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3.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소그룹의 필요성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의 회복의 기본은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회복해야 할 당위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본질중 하나는 교회가 교제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 교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교제이며 성도 상호간의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교제의 모형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이 교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뜨거운 교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구조 속에서 공동체성을 아무리 주장하고 외쳐도 대그룹 조직 속에서 방관자가 되어 있는 한, 진정한 교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소그룹이라는 환경이 이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된다. 소그룹이라는 형식을 빼놓고는 우리가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고 그만큼 신

86) 박영신, 정재영,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260.

속하게 교회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본질을 회복하기는 어렵다.⁸⁷⁾ 오늘날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함에 있어서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무엇인가?

스나이더는 현대 사회구조에서 갖는 소그룹의 실제적인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⁸⁸⁾ 첫째, 유연성이 있다. 장소, 시간, 횟수, 규모에 융통성이 있다. 둘째, 유동성이 있다. 가정 뿐 아니라 사무실 등 사람이 있는 곳 어디서나 가능하다. 셋째, 포괄적이다. 사회신분,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넷째, 인격적이다. 대화를 통해 인격적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다섯째, 분할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 여섯째, 전도의 수단이 된다. 일곱 번째, 최소한의 전문적 지도력만 있으면 그룹을 이끌 수 있다. 여덟 번째, 제도화된 교회에서도 적용가능하다.

스나이더의 이와 같은 주장은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소외와 고립, 차별과 갈등의 시대 상황과 자본주의적 가치에 물들어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그룹이 얼마나 많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그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소그룹이 이러한 장점들을 갖게 되는 것일까?

정웅섭은 소그룹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 다음의 다섯 가지를 이야기 한다.⁸⁹⁾

첫째, 심리적 해방의 보장이 일어난다. 지나치게 성급하게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면 소그룹 상호간의 친밀감이 육성되지 못하고 의사소통의 단절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개방과 타자수용의 노력, 공동탐구, 정신적 안정감의 증진 등이 필요하다.

둘째, 과제의 제공과 분담이 행해진다. 소그룹의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목표와 활동에 대한 의욕을 지니게 한다. 이를 위해 과제의 부담과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다른 그룹과의 협력이 활발하다. 소그룹이 자체의 과제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단계에 이르면 다른 그룹이나 보다 큰 그룹과 밀접한 교섭관계를 가지려는 경향이 생긴다. 즉 소그룹 자체를 보다 깊이 특성지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87) 육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239.

88) Howard A.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68-169.

89) 정웅섭, *현대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346-349.

독자적 위치에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어, 다른 그룹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갖게 된다. 이러한 소그룹의 협력성과 개방성은 자체 활성화에 있어서도 활력소로 작용한다.

넷째, 소그룹 활동은 공동사고와 공동행위에 의한 공동 작업이다. 이것은 공동작업을 통해 개체 구성원들이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속한 다른 구성원과의 교류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 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것은 상대방과의 진지한 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참다운 협동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그룹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다섯째, 동일한 가치관으로의 통합이 일어난다. 구성원들이 같은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 얼마만큼 통합되어있는가를 측정함으로써 소그룹의 발달 성향을 알 수 있다.

소그룹은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과 유교의 쓴 뿌리를 버리고 성경적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그룹이 갖는 관계적 특성은 다른 요소들보다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클라이드 리드(Clyde Reid)는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깊은 인간관계에 대한 굶주림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소그룹에 관심을 가진다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가져다줄 관계를 필요로 하며 소그룹이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과 용납의 인간관계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⁹⁰⁾ 현대 사회에서 소그룹의 중요성이 부각되어가고 있다. 자신을 드러내고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날 때 인간 본연의 갈망, 인격적 사قم에 대한 갈망을 충족할 수 있고 인격도 성장할 수 있다. 구성원 간에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안정감을 갖게 된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창조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개선되고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게 된다.⁹¹⁾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새 하나님의 백성이다. 옛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일시적이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90) Clyde Reid,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서울: 쿰란, 1996), 15.

91) Jimmy Long, *소그룹 리더핸드북*, 23.

성숙을 사도바울은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한다(갈 6:1-2). 즉 인격적인 상호작용인 ‘코이노니아’와 연결시키고 있으며, ‘서로를 돌아 봄’ 즉 상호 격려를 통해 신앙의 성숙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친근하고 개인적인 상호 작용은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을 통해서도 실행되기가 어려우며 작고 편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소그룹에서 가능하다.⁹²⁾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구성원 전제가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구조 역시 소그룹이 적합하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소그룹은 공동체를 이룩하고 영적은사를 일깨워주며 이들의 구성원을 훈련시킬 수 있는 상관성을 제공하여 준다. 그러한 소그룹의 결과로 교회라는 큰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게 되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사역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소그룹은 또한 새 신자들이 공동체 가운데 쉽게 적응하도록 돕는다. 사람들은 관계형성을 통해 신앙생활의 유익을 먼저 맛본 후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므로⁹³⁾ 소그룹 모임이 이러한 친분관계를 만들어주어 쉽게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⁹⁴⁾

소그룹은 구성원간의 신뢰, 치유, 봉사, 섬김, 사랑, 회복, 자발성, 다양성 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으며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소그룹의 필요성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 사역은 교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가장 적절한 사역이다. 이러한 소그룹 사역을 활용할 때 건강한 교회에 대한 목회 비전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소그룹은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소그룹 사역의 필요로써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시대적 상황과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교회의 현실을 살펴보았고 또한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소그룹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공동체성 회

92) Ron Trudinger, *가정 소그룹 모임*, 장동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150.

93) Andy Stanley &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95.

94) Joel Comiskey, *셀 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0), 126-127.

복을 위한 소그룹 운동 사례로 존 웨슬리의 속회와 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제 3 절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운동 사례

소그룹 사역은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성경 시대에도 소그룹 사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에 의해 시작된 감리교회의 속회를 통한 소그룹 중심의 교회 운동은 오늘날에까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경우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타교단에서도 속회의 선례를 따라 구역이나 순, 목장과 같은 이름의 소그룹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속회는 현대 소그룹 중심의 교회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셀 교회가 셀을 통해 강력하게 소그룹 중심의 교회 운동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에 대한 사례로서 감리교회의 속회와 셀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속회와 셀은 소그룹으로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이루면서 코이노니아와 평신도 사역자화를 통해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중심의 교회 운동의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자가 6장에서 다룰 명암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1. 존 웨슬리와 속회

존 웨슬리의 소그룹 운동에 대한 이해는 영국의 신도회 운동과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영국 성공회 목사였던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신도회 운동’(Religious Society Movement)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또한 1735년 미국 조지아 선교사역을 시작하면서 만난 모라비안들과의 만남을 통해 독일 경건주의, 특히 모라비안의 소그룹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⁹⁵⁾ 이를 통해 존 웨슬리는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성공회 교구에 전형적인 기독교

95) 김현진, *공동체신학*, 187.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의욕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초대교회의 정신과 형식을 되찾으려는 의욕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성공회의 신도회 운동은 1678년경 세인트 클레멘트 데인스 교회에서 젊은 이들에게 경건한 삶을 권고하며, 몇몇 ‘청년 신도회’(Society of Young Men)를 지도하였던 안토니 호네크(Anthony Horneck)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⁹⁶⁾

안토니 호네크는 신도회에서 개인의 경건한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실천적인 경건을 장려하였다. 또한 두 명의 청지기를 선발하여 구제를 위한 일을 맡겼는데, 이는 후에 평신도 리더십의 시발이 되었고, 이로 인해 신도회 운동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⁹⁷⁾

1698년경 조지아 우드워드(Josiah Woodward)는 신도회의 목적을 자기반성을 통한 완전과 성결의 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 그 체계를 수립하였다. 1700년경에는 런던의 신도회 모임이 40여 개로 증가했으며,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는 총 30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9-10개의 신도회로 모임 만큼 성장하였다.⁹⁸⁾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Oxford) 대학에 재학하던 때에 ‘기독교 신앙지식 보급 신도회’(SPCK)에 합류했으며, 이 모임을 수용 발전시킨 감리교 최초의 모임인 ‘신성회’(The Holy Club) 활동을 시작하였다.⁹⁹⁾ 영국 성공회의 신도회가 존 웨슬리에게 준 영향은 신성회는 물론이고, 후에 많은 부분에서 감리교 조직의 직접적인 선례가 되었다.¹⁰⁰⁾

신도회는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소모임이었지만, 동시에 그 소모임을 통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이는 신성회의 모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으며, 후에 존 웨슬리의 소그룹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었다.

독일 경건주의는 17세기 당시 신학자들의 교리주의와 철학자들의 이성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19세기까지 두 세기에 걸쳐 독일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본질과 참된 교회를 회복하려 했던 운동이었다.¹⁰¹⁾ 독일 경건주의는 초대 교회의 본질과 그러한 공동체

96) Howard A. Snyder, *성령의 표적*, 명성훈 역 (서울 나단, 1994), 222.

97) David L. Watson, *웨슬리와 속회*, 한경수 역 (인천: 성서연구사, 1986), 122-123.

98)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1999), 35-36.

99) Ibid., 37.

100) David L. Watson, *웨슬리와 속회*, 129.

101) 김현진, *공동체신학*, 171-172.

적인 삶을 회복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독일 경건주의는 소그룹 공동체 운동을 그 중심에 두었다. 존 웨슬리는 독일 경건주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특별히 필립 스펜너(Philip J. Spener)에 시작된 ‘경건한 모임’(Collegia Pietatis)과 니콜라우스 루드비히 진젠도르프(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에 재조직된 ‘모라비안 형제단’(Moravian Brethren)의 소그룹 공동체 운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존 웨슬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범주 안에서 영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존 웨슬리는 영국교회가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결여함으로써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존 사이먼은 이에 대해 존 웨슬리가 이러한 영국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그룹적 교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고 지적한다.¹⁰²⁾ 당시 영국교회는 예배와 성만찬에서 성도의 교제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존 웨슬리는 그것이 교회 역사의 특유한 표지였던 신자들 개인 간의 정신 및 인격적 교제를 마련하는 데는 불완전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존 웨슬리는 보편적인 교회관에 입각하여 전체 회중의 교회 가운데서 규칙적인 생활을 따라 거룩함의 누룩이 되고자 하는 신자들의 작은 공동체 교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것이 곧 그가 말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의 개념이며, 그는 이 개념에 따라 속회를 비롯한 감리교의 조직을 형성하였다.¹⁰³⁾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연합 신도회’, ‘속회’(Class), ‘신도반’으로 조직하였다. 연합 신도회는 신도회들을 모두 합쳐 구성되었는데,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감리교 회원 전체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속회와 신도반은 소그룹 조직이지만, 신도반은 공동체성 회복보다는 개인의 영적 성장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에 속회는 무엇보다도 소그룹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속회야말로 존 웨슬리와 감리교회의 소그룹 중심의 교회 회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존 웨슬리는 이미 조직되어 있던 신도회와 신도반을 운영하면서도 진정한 친교를 나누는 장으로서의 공동체성의 결여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속회가 예기치 못했던 방향에서 시작되었다.

102) Colin W. Williams, 존 웨슬리의 신학, 이계준 역 (서울: 전광사, 1990), 161.

103) Ibid., 162.

속회는 1742년 2월 15일, 신도반 모임을 위해 구입한 브리스톨의 새 건물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던 중 은퇴한 선장 포이라는 사람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포이는 채무의 청산을 위해 신도회의 회원이 매주 1페니씩 기부금을 내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존 웨슬리는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전체 신도회를 12명씩으로 나누어 속회를 구성하고 각 속회마다 속장을 임명해 매주 기부금을 받게 했다.¹⁰⁴⁾

속장들은 기부금을 거두러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속도원들 개개인의 영적 감독자 역할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속장들 중 하나가 자신의 속도원들의 문제, 즉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일과 아내와 싸우는 일, 그리고 술 취해 있는 모습 등을 존 웨슬리에게 보고하였다. 존 웨슬리는 이러한 보고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의 해답을 얻었다.¹⁰⁵⁾

존 웨슬리는 속회를 기부금을 모금하는 단순한 조직에서, 서로 충고하고, 견책하며, 격려하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로서의 소그룹 공동체로 재조직하였다. 속회에서 각 회원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고, 특별한 필요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받거나 도움을 받았다. 존 웨슬리는 이러한 속회 모임을 성서적이며 실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속회 모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¹⁰⁶⁾

소그룹으로 모여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돕고, 양육하며 성도의 교제로서의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속회야말로 초대교회 소그룹 공동체를 회복하는 소교회이며 가정교회였다. 바렛트(L. Barrett)는 속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가정교회였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⁰⁷⁾

이처럼 속회는 신학적으로나 교회 회원권의 전제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교회 속의 작은 교회’로서의 개념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는 곧 속회는 본질적으로 교회의 최소 기본 단위로서 축소형 교회의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매주 한 번씩 만나 서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속회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의 삶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우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104) David L. Watson, *웨슬리와 속회*, 157.

105)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6), 218.

106) Howard A. Snyder,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레*, 조종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78.

107) 한정애, *교회사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75.

속회는 매주 모임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에 있는 12명 내외로 조직되었으며, 각 속회에는 지도력을 훈련 받은 한 명의 속장이 있었다. 또한 속회는 교회 회원권의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인이 속회에 속하게 되었다. 속도원의 구성은 남성, 여성, 때로는 필요에 따라 혼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속회는 개인의 집에서 매주 1회 저녁 8시에 한 시간 정도 구성원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고 친교하며 기도하는 모임으로 모였다.¹⁰⁸⁾

속회는 속장의 인도에 따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속장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의 영적 생활 경험에 대해 고백하는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속장은 속도원들에게 일주일의 영적 생활을 묻는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하였다.

첫째,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지었는가? 둘째, 무슨 유혹을 받았는가? 셋째, 어떻게 물리쳤는가? 넷째,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었는가? 다섯째,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도 갖고 있지 않는가? 속도들은 이 질문에 따라 각각 돌아가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고백하고, 회개하였다. 그리고 나서 속장은 속도들 각각에게 필요에 따라 충고나 권면, 훈계를 하고 위로와 격려를 더하였다. 그 후 다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속의 은혜를 위해 통회 자복한 후 속장이 각 속도들을 위해 기도한 후 모임을 마쳤다.¹⁰⁹⁾

소그룹 공동체로서의 속회는 코이노니아, 평신도 지도자 개발, 공동의 성화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초대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의 복귀를 그 개혁의 축으로 삼고 있는 감리교 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속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초대 교회의 가정 교회의 특성들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존 웨슬리는 속회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생명력 있는 교제로서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기독교의 교제를 회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이처럼 사랑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결국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성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는 감리회 회원들의 성화를 향한 행보에 늘 관심을 기울였고, 또한 효과적으로 성화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속회는 속도원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108) 한정애, *교회사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219.

109) 김흥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46-47.

함께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다.

속도원들은 속회 공동체에서의 상호 직고를 통해 서로 사랑으로 영적 생활을 돌보는 것, 그들의 신앙이 파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사랑을 통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 또한 은혜를 받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랑의 선행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공동의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었다.¹¹⁰⁾

또한 속도원들은 기도와 성경연구를 통해 자기들의 생활 형편에 맞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방법도 배웠으며, 속회 모임에서의 순수함과 친밀함을 누림으로써 좀 더 깊은 영성과 경건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¹¹¹⁾ 나아가 속회는 채플, 책방, 어린이를 위한 학교, 과부의 집, 무료 진료소 등을 돕고, 후원하면서 사회 변화를 위한 책임을 감당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¹¹²⁾

이처럼 속회는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속도원들을 훈련시키고, 영적 생활을 나누고 돌보며 성장시키고, 이를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하게 함으로써, 속회 안에서 공동의 성화를 이루어 가는 장이 되었다.

2. 셀 교회

18세기 영국의 감리교회는 속회를 통해 소그룹 중심의 교회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존 웨슬리 사후에 감리교회의 속회는 점차 형식화 되면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서의 공동체적 본질이 퇴색되었다. 다행스럽게도 현대에 들어 여러 소그룹 중심의 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셀 교회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셀 교회는 그 지향점을 크게 두 가지로 두고 있는데, 하나는 소그룹 셀을 통한 가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재생산을 통한 성장과 부흥을 이루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한국의 셀 교회들은 대부분 재생산을 통한 성장과 부흥에 그 목적을 두고 셀 교회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셀 교회가 소그

110) 김홍기 외,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1995), 47.

111) 이후정, *성화의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34.

112)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6), 428.

를 공동체로서의 사역에서 시작되었다면, 부흥과 성장이라는 초점과 함께, 소그룹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에도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셀 교회가 교회의 소그룹을 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그룹이 셀과 같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교회의 기본 단위이며, 그것의 총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생명체라는 사실에 기초했기 때문이다.¹¹³⁾

랄프 네이버는 셀 교회를 비전통적 교회로서 교회 안에 있는 셀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가정에서 모여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신자들 간의 사랑의 교제, 양육, 그리고 서로 간의 돌봄과 사역을 시행하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¹¹⁴⁾ 이는 곧 셀 자체가 교회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작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셀이 갖는 주된 임무는 그리스도인의 기초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¹¹⁵⁾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진 확대가족이며 교회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공동체로서의 셀은 교회의 기초 단위이자 그 자체가 교회 속의 작은 교회인 것이다.

데이비드 핀넬은 “셀이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로 섬기고 또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소그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유기체적 몸”¹¹⁶⁾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영철은 셀을 5-15명의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 속의 교회들’로서 예배, 교제, 기도, 전도, 교육, 봉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성령님을 중심으로 영적 가족공동체로서의 경험이 가능하도록 구성원 간에 상호의존관계를 맺은 소그룹으로 정의한다.¹¹⁷⁾

결국 셀은 주님의 몸된 교회 속의 작은 교회로서 예배, 교제, 기도, 찬양, 양육, 교육, 전도, 봉사 등을 수행하며 인격적인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영적인 가족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세워주고, 서로 함께 나누며, 상호의존관계를 맺는 소그룹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셀 교회의 구조는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랄프 네이버는 이를 ‘C’로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셀’(Cell), ‘회중’(Congregation), 그리고 ‘축제 예배’(Celebration)이다.¹¹⁸⁾

113) 박영철, *셀 교회론*, 250.

114) Ralph W. Neighbour, Jr. *셀인턴 지침서*, 터치코리아사역팀 역 (서울: NCD, 2001), 39-40.

115) Ralph W. Neighbour, Jr.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NCD, 2003), 149.

116) David Finnell, *셀 교회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9), 28.

117) 박영철, *셀 교회론*, 231.

이는 다시 2중 구조로 재편할 수 있는데, 소그룹인 ‘셀’과 대그룹인 ‘회중’, 또는 ‘축제예배’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셀’인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 2:42-46에 근거하여 소그룹 공동체인 셀을 통해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가 살아나고, 성경적인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셀은 5-15명으로 구성된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 단위이며, 그 자체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셀은 대그룹을 지원하거나, 그 안에 첨가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교회 생활의 기본 단위를 이룬다. 셀은 각 멤버들이 서로를 세워 주게 되며, 그리스도인들 서로에게 책임을 갖게 되며, 서로에게 완전히 투명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셀은 진정한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확대가족 단위가 된다.¹¹⁹⁾

세계적으로 많은 셀 교회가 있으며, 그 셀의 구조나 기능, 운영 방법도 다양하다. 그러나 그 형태를 볼 때, 현저하게 다른 두 유형의 셀이 있다. 하나는 교인은 물론 불신자도 셀 멤버로 받아들이는 ‘열린 유형의 셀’(Opened Cell)이며, 다른 하나는 교인만 셀 멤버로 받아들이는 ‘닫힌 유형의 셀’(Closed Cell)이다. 셀 멤버 자격의 개방 여부의 문제는 셀 교회의 기본 정신을 따르느냐, 아니면 셀을 단순히 교회 성장의 방법으로 여기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¹²⁰⁾

열린 유형의 셀은 셀 멤버가 되는 자격을 누구에게나 열어둠으로써 불신자들이 보다 쉽게 기독교를 접하고, 전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도하기에 좋은 유형의 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와 기능에 그 초점을 맞춘 유형의 셀이라고 할 수 있다.¹²¹⁾ 또한 개방성은 셀 멤버 자격으로 인한 위화감을 막을 수 있으며, 초신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델로 신앙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²²⁾ 그러나 열린 유형의 셀은 불신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구성원들 상호 간의 용납과 섬김, 그리고 나눔 등 공동체성을 나눌 수 있는 상호 신뢰와 의존적 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¹²³⁾

118) Ralph W. Neighbour, Jr. *셀 교회 지침서*, 297.

119) Ibid., 299.

120) 박영철, *셀 교회론*, 238.

121) 박영철, “한 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목회와 신학*, 2003년 2월호, 77.

122) 박영철, *셀 교회론*, 239-240.

123) Ibid., 290.

단한 유형의 셀은 셀 멤버의 자격을 세례를 받은 교인들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에, 셀 안에서 보다 자유롭게 삶의 깊은 문제와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영적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유형의 셀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⁴⁾ 그렇기에 단한 유형의 셀은 교회의 본질인 영적 가족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셀 멤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저 없이 나눔으로 영적 가족으로서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단한 유형의 셀은 교회 내에 셀 멤버 여부의 차별로 인한 이질감과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있으며, 셀 멤버들이 그들만의 교제에 빠져들어 셀을 폐쇄적 공간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¹²⁵⁾ 그러므로 단한 유형의 셀은 교회의 본질로서의 가족공동체를 구현할 수는 있지만, 반면에 교회의 양적 성장이 느려 역동적이지 못하다.

교회의 본질로서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단한 유형의 셀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회의 또 다른 본질로서의 전도를 위해서는 열린 유형의 셀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한 유형의 셀이 셀 멤버가 아닌 초신자나 불신자를 셀로 초청하여 교제하거나, 또는 하나의 셀을 열린 유형의 셀과 단한 유형의 셀이라는 이중 모임으로 혼합할 수 있다.

셀 교회의 전도를 통한 양적 성장과 공동체성을 통한 질적 성장은 어느 한 쪽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양자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본질적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 교회의 상황에 따라 열린 유형의 셀과 단한 유형의 셀을 적절하고 조화롭게 혼합하여 소그룹의 본질로서의 공동체성에 기초를 둔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셀의 목적은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이 어울려 사는 지역사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교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¹²⁶⁾ 이러한 교제 공동체는 사랑을 통해 구성원 각자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주변의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교회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셀은 교제의 차원을 뛰어넘어 영적 가족관계를 맺는 가족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 회복을 목표로 한다.

셀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요청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124) 박영철, “한 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77.

125) 박영철, *셀 교회론*, 292.

126) David Fennell, *셀 교회 평신도 지침서*, 28.

두 날개 중 잃어버린 한 날개, 즉 소그룹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과 이를 통한 건강한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셀은 교회의 본질 회복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셀을 도입하고, 셀 교회로 전환하는 이유를 교회의 양적 성장에 두고 있는 현실이다.

박영철은 이에 대해 “셀 교회의 본질은 양적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실현하는 데 있다”¹²⁷⁾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셀 교회를 이해하려면 그 운영 방법이나 구조, 조직, 훈련자료 등과 같은 외적 요소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박영철은 셀 교회의 본질을 세 가지 정신으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온전히 복종하는 정신이다.¹²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¹²⁹⁾ 이는 복음의 본질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기를 거부하고 실질적인 헌신과 복종을 이루는 삶에로의 회복을 근본정신으로 하는 것이 셀 교회이다.¹³⁰⁾

그러므로 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순종하는 삶을 고양해야 한다. 셀 교회 모델을 적용함에 있어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순종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교회 성장만을 위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상누각을 세우는 격이다.

둘째,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자는 정신이다.¹³¹⁾ 이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사역하고 섬기며 봉사하였던 초대교회와 만인제사장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 부합한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오늘날의 개신교회는 목회자와 몇몇 사역자들이 교회의 사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또한 빌 벅햄은 전통교회의 경우 교회에서 20퍼센트가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며, 나머지 80퍼센트는 생산적인 사역을 하지

127) 박영철, “한 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73.

128) Ibid., 74.

129) Ralph W. Neighbour, Jr. *셀 교회 지침서*. 91.

130) 박영철, “한 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74.

131) Ibid., 74.

않는 소비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¹³²⁾

셀은 이러한 비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개혁하고, 본질적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셀의 경우 모든 멤버들이 각각의 셀에서 은사에 따라 책임 있는 사역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교회의 경우에는 구조상 사역의 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사역이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다.

그러나 셀의 경우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사역의 기회가 많고, 또한 셀 멤버들의 양육과 성장을 위해 사역을 분담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의 셀이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모든 멤버들이 하나 이상의 사역을 하게 되고, 멤버들의 영적 성숙에 따라 점점 다른 사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엘튼 트루블러드(Elton Trueblood)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새로운 종교개혁의 출범을 뜻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듯이¹³³⁾ 그룹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셀은 제 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셀 교회의 세 번째 정신은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실현하는 정신이다.¹³⁴⁾ 신약성경은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들을 사용한다. 이는 곧 교회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은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서도 논의하였듯이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로서의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현장이다.

셀의 주된 임무 역시 ‘그리스도인의 기초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확대가족이 사회의 오이코스(가족)이듯이 셀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진 확대가족이며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초석인 것이다.¹³⁵⁾ 그러므로 셀이 가지는 이 세 번째 정신은 교회를 교제의 차원을 뛰어넘어 영적 가족관계를 맺는 가족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 회복을 목표로 한다.

이상으로 소그룹 사역 유형으로 속회와 셀 그룹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그룹 사역 유형을 통해서 소그룹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고히 했다. 이외에도 소그룹 사역에는 여

132) William A.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사역팀 (서울: NCD, 2004), 60.

133) Ibid., 17.

134) 박영철, “한 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74.

135) Ralph W. Neighbour, Jr. *셀 교회 지침서*. 149-150.

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 본 연구자가 유독 속회와 셀 그룹의 유형만을 논한 것은 셀 그룹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목회 계획을 가지고 있기에 본 절에서는 다른 유형들은 다루지 않았다.

지금까지 본 장에서 소그룹 사역을 통한 교회 공동체성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의 필요성으로 소그룹에 대한 이해로 소그룹의 정의, 소그룹의 특성과 역할을 살펴보았다. 또한 시대적 상황과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교회에 대해 살펴보므로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소그룹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운동 사례로 감리교회의 속회와 셀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 4장에서는 소그룹 사역 활성화 전략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 사례 연구로 고양 화평교회의 설립과정과 목회자의 철학, 비전 그리고 소그룹 제자훈련 사역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또한 평택 대광교회의 소그룹 사역 사례를 통해 명암교회가 지향해야 할 소그룹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4 장

소그룹 사역 활성화 전략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 사례 연구

앞에서는 소그룹 사역을 통한 교회 공동체성 회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소그룹 사역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 고양 화평교회와 평택 대광교회가 두 교회를 선정하여 그 성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두 교회는 각각 독특한 소그룹 사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 1절 고양 화평교회

소그룹 중심의 개방형 가정 교회는 성경적 교회 공동체성 회복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다. 가정 교회의 핵심 구조는 소그룹이고, 성장의 핵심에는 목회 리더십이 있다. 본 절에서는 소그룹과 제자훈련을 통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가정 교회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세워가고 있는 화평 교회의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교회연혁

화평교회는 1988년 1월 30일 최상태 목사 가족과 3명의 형제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됐다. 화평교회가 세워질 당시 고양시 원당 지역은 인구 5만 정도의 도시였지만, 개척한지 5년 후부터는 신도시 개발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인구도 2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개척 초기에는 교회가 어려웠지만, 1998년 9월부터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 가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제자훈련에 기초한 가정

교회를 시작하여 계속해 성장했다.¹³⁶⁾ 화평교회는 현재 14명의 교역자와 160여명의 평신도 사역자와 1500여명의 성도들과 102개의 가정 교회 그리고 6명의 파송선교사와 80여개의 협력 선교지를 돕고 있다.¹³⁷⁾

화평교회는 ‘제자훈련 사역’과 ‘가정모임 사역’을 목회의 큰 두 기둥으로 생각하고 균형 있게 성숙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소그룹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이다.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워 그들에게 위임하는 일과, 그 사역자가 구체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가정모임사역이 있다. 화평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모임은 “소그룹 목회의 한 형태로서 기존의 구역 제도와는 달리, 소그룹 안에서 교회의 기능을 하는 작은 교회와 같은 모임” 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서 관계를 중시하며, 전도를 통한 영적 재생산을 목표로 하는데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든 전도대상자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모임시간은 매주 한번 2-3시간 정도이며, 정기모임 시간외에도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가원들의 협력으로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의 교제, 친밀감 넘치는 결속, 불신남편 전도, 성숙해 가는 서로의 신앙 등 간증거리가 넘친다.

화평교회는 제자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 교회로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 과정에 대해 최상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¹³⁸⁾ 개척 이후 5년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원인은 제자훈련에 대한 목회 경험 부족과 훈련할 준비된 제자가 부족, 그리고 지역적인 상황 때문이었다.

1994년 3월 국제제자훈련원의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에 참석해 제자훈련의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한 결과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최상태 목사는 제자훈련과 가정 교회는 아귀가 잘 맞는 톱니바퀴와 같다고 말한다. 즉 제자훈련은 동력을 전달하는 축과 연결된 톱니바퀴이고, 가정 교회는 제자훈련이란 톱니바퀴를 통해 동력을 전달받아 또 다른 톱니바퀴에 힘을 전달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이라는 토양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가정 교회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건강한 교회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

136)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37-38.

137) 화평교회 홈페이지, Online: www.hwapyung21.org

138)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39-42.

2. 목회철학과 비전

화평교회는 제자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하고,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섬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화평교회는 건물과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 중심의 교회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보다 생명력 있는 단순하고 실제적인 사역에 집중한다. 각종 회의를 줄이며 생산적인 사역과 관계에 집중한다.¹³⁹⁾

현재 화평교회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¹⁴⁰⁾ 첫째, 모든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다. 둘째,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교양시에 사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 지역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넷째, 세계 각 곳에 수 백 명의 선교사와 평신도 사역자들을 파송하며 협력하는 것이다. 다섯째, 건강한 모델 교회로 성장하며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섬기고 돕는 것이다. 여섯째, 다음 세대 사역에 주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곱째, 화평의 가족들이 함께 배우며 사랑하며 섬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케 경험하는 좋은 영적 분위기의 교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비전은 최상태 목사의 목회철학에서 비롯된다. 최상태 목사의 목회철학은 다음과 같다.¹⁴¹⁾ 첫째, 공동체(관계)를 중요시하는 교회이다. 둘째, 성경에 기반을 둔 사역에 힘쓰는 교회이다. 셋째, 평신도를 훈련하여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이다. 넷째, 훈련받은 사람이 사역하는 교회이다. 다섯째, 균형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교회이다. 여섯째, 주님 닮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 내는 교회이다. 일곱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적극 순종하는 교회이다.

이러한 목회철학 위에 최상태 목사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하여 세우고,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또한 재훈련하는 일에 70퍼센트 이상의 목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화평공동체 2020 VISION 핵심가치를 통해서 성경에 근거한 사역, 즉 평신도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와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절대 가치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¹⁴²⁾

139)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53.

140) 화평교회 홈페이지, Online: www.hwapyung21.org

141)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54.

3. 소그룹과 제자훈련 사역

제자훈련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다. 이렇게 훈련된 사역자들은 가정모임이란 광장을 통해 제 역량을 발휘한다.

화평교회는 1988년 1월에 설립되어 1998년까지 10년간은 꾸준히 제자훈련사역으로 교회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훈련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전체 성도들 수도 늘었다. 질과 양의 성장이 있지만 교회의 고민도 있다. 최상태 목사는 화평교회가 훈련된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며 성장할 때 다음과 같은 고민과 갈등을 했다.¹⁴²⁾

첫째,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돌보며 섬길 수 있는가? 둘째, 훈련된 성도들이 지속적인 훈련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 제자훈련 과정을 마친 성도들이 지속적인 훈련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넷째, 형편상 제자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과 받은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다섯째, 제자훈련 받지 못해도 받은 은사대로 헌신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 이러한 고민과 갈등에 대한 화평 교회의 대안이 가정 교회 사역이었다.

화평교회가 지향하는 가정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는 교회이다. 즉 전도와 선교에 역점을 두고 사역한다. 화평교회의 가정 교회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화평 교회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독립적 기능을 감당한다. 화평교회는 소그룹이 교회 사역의 중심이 된다. 102개의 가정 교회별로 수련회, 예배, 봉사, 기도회, 전도축제, 심방, 국내의 선교, 야유회, 사회봉사 등 역동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

화평교회는 소그룹(가정 교회)과 대그룹(큰 공동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그룹의 취약한 부분을 소그룹이 보완해 주고, 소그룹의 약한 부분을 대그룹이 감당하며 서로 독립적이면서 유기적 관계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 화평교회는 소그룹 사역을 목회의 한 방법론이 아닌 목회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생각한다.

소그룹은 사람을 훈련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적합한 환경이다. 또한 소그룹은 상호 친밀감, 소속감, 신뢰, 의지와 같은 공동체성의 핵심 요소들을 회복하는데 있어

142) 화평교회 홈페이지, Online: www.hwapyung21.org

143)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51.

서 가장 효과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화평교회는 이러한 소그룹의 강점을 가져왔고, 소그룹 중심의 가정 사역을 목회의 본질로 생각하고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적용함으로써 양적,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성경적 교회 공동체성도 회복하고 있다. 소그룹의 중심의 교회 사역은 화평 교회 구조의 핵심이고, 가정 사역의 기본 토대가 된다.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리더십이다. 소그룹에 탁월한 강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면 소그룹 사역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화평교회는 소그룹 리더십을 훈련하고 세워 가는 사역에 집중한다.

화평교회가 소그룹 리더십을 개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¹⁴⁴⁾ 첫째, 교육과 훈련이다. 화평교회에서 소그룹 리더십으로 세움 받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새가족반(5주), 양육반(13주), 제자반(35주), 지도자반(15주)은 이수해야만 한다. 이 외에 전도폭발, 신·구약 성경공부반, 부부성장반, 부모역할반 등은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 둘째, 사역을 위임한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도 변화는 일어나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리더십은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된다. 셋째, 사역자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이다. 소그룹 리더십은 이미 훈련된 자이지만 지속적으로 돌봄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화평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찬양예배를 월 1회로 줄이고 그 시간에 소그룹 리더십들의 모임을 갖는다. 보통 1부는 찬양팀이 찬양을 30분 정도 인도한다. 2부에서는 리더십, 멘토링, 소그룹 인도법, 상담, 공동체 훈련 등 다양한 강의를 한다. 3부는 가정 교회에서 가르칠 성경공부를 20분 정도 가르쳐 준다. 화평교회 소그룹 사역의 역동성은 주일 오후 리더십의 지속적인 훈련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모델링(Modeling)이다. 화평교회는 보고 듣고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소그룹 리더십을 개발하고 있다. 화평교회의 소그룹 예비 리더십들은 가정교회에서 월 1회 정도 직접 인도하는 경험을 쌓게 하고 매월 첫째 주일 오후는 가정 교회 지도자 모임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고 있다.

훈련 사역을 통한 소그룹 리더십 개발과 그 리더십들을 통한 소그룹 중심의 가정 교회 사역은 화평 교회로 하여금 성경적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인도했다. 과거 화평 교회는 준비된 제자, 리더십들이 부족으로 인해 소그룹 사역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속적인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많은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훈련

144)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54-58.

된 많은 리더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문제와 많은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돌보지 못하는 문제에 당면하였다. 이에 대한으로 대안으로 가정 교회 사역으로 전환했다.

화평교회가 가정 교회로 전환 후,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맺었다. 첫째, 평신도 사역자들로 인하여 돌봄 문제의 해결이다. 가정 교회 실시 이후 교역자 몇 명이 어렵게 감당하던 돌봄의 사역을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이전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돌볼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평신도 리더십들의 변화와 성숙이다. 평신도 지도자들은 목회자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변화와 성숙이 있었다. 셋째, 전체 성도의 사역화이다. 화평교회는 가정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전체 성도가 각 가정 교회 내에서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 넷째, 관계 속에서 친밀감의 회복이다.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 가정 교회 안에서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다섯째, 유무상통이다. 가정 교회 사역을 통해 초대교회의 물질을 서로 통용했던 것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유무상통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 여섯째, 인재 발굴이 용이하다. 가정 교회를 통하여 은사의 발견이 용이해졌다. 일곱째, 전도와 선교에 효과적이다. 사람들을 가정 교회 모임에 초청함으로 전도에 효과적이었다. 선교에 있어서도 각 가정 교회별로 선교지를 연결해서 선교함으로 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모이는 일이 배가 되었고, 주중 사역활동으로 인한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났다.¹⁴⁵⁾

화평교회는 소그룹 사역과 제자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 교회이다. 화평 교회는 제자훈련이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된다. 철저한 훈련을 통해 좋은 소그룹(가정 교회)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여 재충전시킨다. 화평교회는 제자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 교회 사역을 통해 성경적 교회 공동체성이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있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며, 또한 성도들 상호 간에 친밀감, 존중, 의존, 신뢰가 회복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각 가정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은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각각의 가정 교회는 하나의 커다란 교회 공동체로 연합된다.

이러한 화평 교회의 사례는 가정 교회의 핵심 구조는 소그룹 중심이어야 함을 밝혀준다. 또한 소그룹의 중심의 가정 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리더십이 세워져

145) 도원욱 외, *성장하는 14교회 장년부 부흥 전략*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245-250.

야 하고, 그 리더십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화평 교회의 사례는 훈련된 리더십 개발을 통한 소그룹 중심의 가정 교회 사역은 초대 교회의 정신과 역동성을 가진 성경적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보여주었다.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가정 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개방형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 가정 교회의 시작은 분명한 교회의 존재목적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한 몸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가정 교회는 소수의 가정으로 구성된 완전한 교회로 독립적으로 운영되, 교회의 지도와 수평적 구조 속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다. 가정 교회가 상호 친밀,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를 소그룹 중심의 구조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 교회의 핵심 구조는 소그룹이다.

이러한 소그룹 중심의 가정 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훈련된 소그룹 리더십이 필요하다. 가정 교회의 리더십은 자발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돌보는 섬김의 리더십이다. 섬김의 리더십은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상호 섬김을 전제로 한다. 가정 교회 리더십의 역할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훈련하여 동역자로 세워주고, 분명한 목표와 비전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구성원들을 이끄는 것이다.

소그룹 중심의 가정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개발해야 한다. 가정 교회 리더십 개발은 개인의 정체성 개발, 성품 개발, 사역 개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지속적인 리더십 개발과 관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쇄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가정 교회 사역을 위한 소그룹 중심의 구조와 가정 교회 리더십 개발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화평 교회이다. 화평 교회는 소그룹과 제자 훈련을 기초로 리더십 개발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화평교회는 철저한 제자훈련을 통해 소그룹 리더십들을 세우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관리함으로써 계속해서 성장했다. 이 훈련의 과정과 소그룹 중심의 가정 교회를 통해서 화평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고, 각 가정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의 하나 됨과 각각의 가정 교회들의 연합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성경적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제 2 절 평택 대광교회

대광교회는 강한 소그룹이 있는 교회이다. 소그룹중심의 전도축제와 전도지향적인 소그룹사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이다. 전도 소그룹을 통해 성공적으로 세워가고 있는 대광교회의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교회연혁

평택 대광교회가 창립된 때는 1983년 1월 1일 0시다. 교회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사람들을 창립예배에 초청하기 힘든 시간이다. 실제적으로 초청하지도 않았고 다른 가족에게조차도 알리지 않았다. 7평 남짓 하는 공간에 강대상 하나를 놓고 4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평택대광교회의 시작이다. 배창돈 목사의 목회철학은 제자훈련을 통해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 건강한 교회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아래 철저한 제자 훈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¹⁴⁶⁾

2. 소그룹 사역의 특징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성도가 필요하다. 배창돈 목사는 교회 내에 소그룹을 만들었다. 그 모임을 ‘순모임’이라 불렀다. 기존의 구역장은 순원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하였지만 인도는 담임목사가 직접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성도들에게 귀납법적인 소그룹 환경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빨리 맛보게 하고 싶어서이다. 훈련된 평신도들이 세워지기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이일을 통해 제자훈련 소그룹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함이다. 훈련을 받게 될 성도들이 순모임을 통해 소그룹 환경이나 귀납법적인 성경공부를 경험한 후, 훈련

146) 대광교회 홈페이지. Online: www.ptdaekwang.or.kr

에 임하게 되면 훈련의 효과는 더 크게 된다.

셋째, 훈련생들이 수료 후, 실제 사역의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소그룹의 토양을 어느 정도 갖추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훈련을 받았다 해도 소그룹 환경에 익숙지 않은 순원들을 이끌고 귀납법적으로 모임을 인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수고로 제자훈련 소그룹이 교회 내 핵심 사역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게 된다.¹⁴⁷⁾

리더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령의 열정이 있다면 그 소그룹은 계속적으로 번식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소그룹 리더는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전도하는 소그룹을 세우기 원한다면 소그룹 리더로 하여금 전도훈련을 받게 한다. 평택대광교회는 전도폭발 훈련을 수료한 사람만이 제자훈련에 지원할 수 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리더의 첫 번째 자격은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전도자이기 때문이다.

교회내의 프로그램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감격을 갖도록 도와줌으로써 전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여러 행사를 소그룹 중심으로 하는 것도 소그룹 전도를 돕는 방법이다. 또한 친교의 시간을 활용해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온다 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교제와 행사, 그리고 봉사는 일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소그룹과 교회정착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다.

평택대광교회는 주일 새가족반과 평일 새가족반에 전도자 또는 순장이 순모임에 새로 나온 사람들과 함께 참석하여, 그들이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소그룹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대광교회는 70-75퍼센트 정도는 전도를 통해 등록된 사람들이다. 인구이동이 적은 중소도시에서 전도를 통한 꾸준한 성장이 가능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주일 낮 예

147) 양승언, “교회를 향한 고민과 사랑, 영향력 있는 군사를 만들게 하다”, 월간 *디사이플*, 2006년 5월호, 26.

배 설교가 큰 영향을 끼쳤다. 담임목사의 복음 설교가 불신자들을 안심하고 전도해와도 좋다는 확신을 교인들에게 심어주었다.

대광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으로는 전도폭발과 전도대, 그리고 대각성 전도 집회성격의 ‘행복축제’와 소그룹중심의 전도축제인 ‘순 모임별 전도축제’가 있다. 전도폭발훈련과 전도대는 매주 하는 전도방법이다. 반면 ‘행복축제’는 가을에 열리는 전교인 대상의 전도 집회이다. 이에 비해 ‘순 모임별 전도축제’는 봄에 열리는 소그룹 전도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순 모임별 전도축제는 전도대상자를 먼저 각 그룹으로 초청하고 다음 주에 교회로 인도한다. 각 소그룹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도대상자를 초청하여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한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준비한 이벤트와 간증, 간단한 복음제시 등으로 진행하고 소그룹에서 준비한 선물도 준비한다.

대부분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어온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므로 바로 교회에 나오는 숫자는 적지만, 이 축제를 계기로 교회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되고, 꾸준히 교회로 인도되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대광교회가 세워졌던 곳은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모일만한 여건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과수원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길으로 보기에 교회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힘든 곳이었다. 처음에는 평택 시내에서 개척을 했다가 옮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온다는 이러한 확신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매주일 사람들이 차고 넘쳐났다. 초창기 소그룹성경공부를 할 때 주위에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 3-4명 모아놓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언제 교회를 부흥시키겠느냐고, 위치도 안 좋은데 방법을 바꾸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란 교회에 출석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다. 대광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 교인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 되자 교회를 새롭게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시 IMF까지 겹쳐서 건축하기에 적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건축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순장들을 비롯한 훈련자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¹⁴⁸⁾

교회가 성장할 때는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간다. 대광교회를 건축한 후 전도를 하지 않아도 새 가족이 매주일 마다 넘쳐났다. 그것은 전도에 대한 열정을 식게 한다는 것과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래서 새가족 반을 마치기 전에는 등록을 받지 않았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전도에 더욱 힘쓰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교회는 교회를 움직이는 정신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¹⁴⁹⁾

지금까지 본 장에서 소그룹 사역을 통해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 교회가 성경적이며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양 화평교회 소그룹 사역의 대표적인 특징은 가정교회이며, 평택 대광교회는 구역(순)을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 사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 두 교회는 소그룹 사역의 유형은 다르지만 각 교회만의 특성 있는 소그룹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였으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다. 또한 소그룹 사역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이 대표적인 소그룹 사역 모델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다음 5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명암교회가 앞으로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찾는 작업으로 명암교회의 역사와 목회적 상황과 소그룹 사역의 장점과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148) 양승언, “교회를 향한 고민과 사랑, 영향력 있는 군사를 만들게 하다”, 27-31.

149) 배창돈, *나는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 예찬사, 1993), 15.

제 5 장

명암교회의 역사와 목회적 상황

지금까지 소그룹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과 함께 소그룹 사역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성 회복을 이루어 가고 있는 교회들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제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명암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사역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본 장에서는 그 주체가 되는 명암교회를 파악하고자 교회의 역사와 목회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하고자 한다.

제 1 절 명암교회의 역사

소그룹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지난 과거 명암교회의 통계 자료들을 고찰해보고 명암교회 설립과 성장과정, 그에 따른 열매들을 살펴보하고자 한다.

1. 교회 설립

명암교회의 설립은 청주 동산교회 용담구역 식구들의 개척교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빚어낸 결과였다. 청주 탑동의 동산교회는 1951년 3월 21일 청주고등성경학교 강당에서 강만조 장로의 인도로 신헌민 26명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그 때는 청주시온교회라 불렀고, 초대 교역자는 월남한 문창권 목사였다. 1959년 92평의 예배당을 건축하였고, 1978년에는 다시 350평의 교육관을 봉헌했다. 1979년 4월 영동군 용산면 한곡교회를 개척한 바 있는 동산교회는 당시 838명의 교인(305명의 세례교인)이 있었다.

그 때 동산교회 용담구역은 용담동에 거주하는 3가정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용담구역 식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km나 떨어진 동산교회를 꾸준히 섬겼다. 용담구역 가정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이성수·박동민 안수집사와 김선규·김승옥·최정미 집사 등 용담구역 식구들이 자신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동산교회 당회에 개척교회를 세워 줄 것을 몇 차례 요청했지만 용담동 지역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곳이라 교회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또 용담구역의 박학순 장로는 당회가 열릴 때 마다 개척교회 안을 상정하였지만 그것도 역시 여의치 않았다.

개척 멤버들은 용담동에 교회가 설립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내 교회 중진 목회자들과 접촉하였다. 또 동산교회 중진 집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개척교회 설립을 찬성하며 격려해 주었다. 그래서 개척교회설립 청원서를 연명으로 작성해 당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결국 용담구역 제직들은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기 보다는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1979년 5월 첫 주부터는 주일저녁에 구역 식구들의 가정을 돌며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김선규 집사 가정에서 주일예배를 보게 되었다. 그 날 개척 결단의 첫 주일예배에는 이성수, 최정미, 박동민, 김승옥, 김선규, 장옥희, 유광순, 박승자, 조귀녀 등과 자녀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다.

용담구역 식구들이 교회설립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접한 동산교회 당회는 그 다음 날인 6월 3일 새벽 긴급 당회를 열어 용담동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고 설립위원회(당회원 전원, 박동민 이성수 이상덕 김영식 안수집사, 김정훈 이진영 집사, 최순근 안정옥 권사)를 조직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¹⁵⁰⁾

- 용담 지역에 개척교회를 설립한다.
- 동산교회 김원재 전도사를 교역자로 파송한다.
- 개척교회 설립 보조금으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 매월 6만원씩 보조한다.
- 장로: 박학순, 권사: 박설순, 안수집사: 이성수 박동민
서리집사: 김선규 이종순 유광순 이상철 최정미 김승옥 박창복
권찰: 장옥희 오장순 씨 등을 개척교회 제직으로 봉사하도록 한다.

150) 청주동산교회 60년사 (청주: 청주동산교회 60년사 편찬위원회, 2011), 129.

그 후 교회 설립의 절차가 급진전되었다. 먼저 6월 20일 김승옥 집사가 교회 부지 65평(청주시 용담동 138-8)을 헌납하였다. 그리고 그 곳에 천막교회 18평(총공사비 150만원)을 짓고 창립예배를 준비하였다. 천막 칠 땅의 정지작업에는 개척 제직원 모두는 물론 각 가정의 아이들까지 참여했다. 그래서 3일 만에 천막을 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천막교회는 공사 시작 1주일 만에 기둥과 지붕을 올릴 수 있었다.

예배당이 완성되던 날 밤 용담구역 가족들은 모두 천막교회로 모였다. 박학순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이 날 모임은 이성수, 김선규, 박동민 집사의 기도가 이어지면서 감동이 배가되었다.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감자와 국수를 나누면서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얘기했다. 또 그동안 수고한 성도들의 수고를 기리면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교회 이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용담교회, 약수교회, 명암교회 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결국 개척 제직들은 새로운 교회 이름을 명암교회로 정했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밝을 明), 반석 위에 세운(바위 岩) 교회라는 의미였다. 이제 명암교회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

2. 성장 과정

교회의 역사를 발돋움의 시기(1980-1990), 부흥과 성장의 시기(1991-2000), 그리고 성숙(2001-현재)의 세 시기로 나누어 간략하게 살피고자 한다.

가. 발돋움의 시기(1980-1990)

개척 후 10개월 만에 첫 번째 교역자가 떠나고 제 2대 김정웅 목사의 부임으로 명암교회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창립 1년 2개월 만인 9월에 예배당 건축 공사를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렸다. 1979년 7월 1일 어린이를 포함하여 28명으로 시작한 명암교회는 새 성전(제2성전) 입당에 이어 1981년 1월에 장년 175명, 유초등부 158명, 중고등부 5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

1983년 2월 6일 명암교회의 주일예배 참석인원은 장년 212명(남 70, 여 142)이었다. 교회학교 유초등부는 120여 명, 중등부 30여 명, 고등부 20여 명, 청년부 20여 명 등으로 정말 교회가 괄목할 만하게 발전했다. 그렇다면 명암교회가 이토록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개척 멤버들의 교회에 대한 열정을 꼽을 수 있다. 명암교회는 용담구역 식구들의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대 이후의 교회 개척이 주로 목회자 개인의 필요나 개교회·기관들의 선교 전략적인 지원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볼 때 한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이 지역을 나누어 교회를 분립하는 전통은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전통은 사실 한말·일제강점기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설립 모델이다.

둘째, 1년 조금 더 되는 기간이었지만 천막교회 경험 역시 명암교회 성장의 자양분이었다. 풍요로운 물질적 환경이 질 높은 성도의 교제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초대교회의 사례가 증명하듯이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 흠바닥과 천막에서의 교제는 오히려 성도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교회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갖게 했다.

셋째, 창립 1년 만에 부임한 김정웅 목사의 신속한 교회 건축 결정과 실천이다. 10년 간 이미 네 군데의 교회에서 목회 경험을 쌓은 김정웅 목사는 불과 열흘 만에 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빠르게 예배당 건축을 주도하였다. 그는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칫 이완되기 쉬운 부임 초기의 생경함을 교회 건축이라는 분명한 목표 제시로 극복하였다.¹⁵¹⁾

나. 부흥과 성장의 시기(1991-2000)

김정웅목사의 목회 철학은 1980년대 이후 1990년대를 지나면서 분명해졌다. 그의 목회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복음주의적인 교회 운영이다. 김정웅목사의 현장 목회는 몸에 밴 기도생활을 통해 단련된 영성을 기반으로 성도들의 경건생활을 적극 강조한다. 그는 기도와 성경공부, 전도와 주일학교 교육 등 한국 교회 주류의 신앙적 가치를 존중하고 계승하는 데 주력한다.

151) *명암교회 30년사* (명암교회 30년사 편찬위원회, 미발행), 34-38.

다른 한편으로, 김정웅목사는 경건과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 는, 사회 현실에 대한 외면과 피안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목회철학 을 갖고 있다. 교회가 소외된 자, 어려운 사람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 조한다. 1980-1990년대 김정웅목사의 민주화운동 참여는 바로 이러한, 경건과 참여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90년대 후반부터 김정웅목사의 사회 활동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변화 하게 된다. 즉 인권과 민주화라고 하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외된 이웃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명암교회의 사회사업과 복지사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¹⁵²⁾

1990년 명암교회의 제직회 조직은 재정부·관리부·교육부·봉사부·전도부와 개척위 원회·장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5부 2위원회 체제는 1995년 친교부가 추가되 어 6부 2위원회 체제로 될 때 까지 계속되었다. 명암교회의 제직회 조직이 대대적으 로 바뀐 것은 1996년부터였다. 즉 기존의 6부 2위원회 체제가 12개 위원회 체제로 변 경되었다. 12개 위원회는 ① 예배위원회 ② 교육위원회 ③ 전도위원회 ④ 관리위원회 ⑤ 개척위원회 ⑥ 봉사위원회 ⑦ 재정위원회 ⑧ 장학위원회 ⑨ 친교위원회 ⑩ 환경보 전위원회 ⑪ 차량관리위원회 ⑫ 경건절제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 12개 위원회 체제 는 2006년 세 개의 명암특별위원회가 새로 추가될 때 까지 10여 년 간 지속되면서 명 암교회 성장의 근간을 이루었다.

성가대는 1980년대 한 개의 조직으로 예배를 돕다가 1993년 부부성가대가 만들 어지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부성가대는 1994년 호산나성가대로 이름 을 바꾸었다. 그리고 1997년에는 1부 예배를 돕는 1부성가대가 조직되면서 기존의 2 부성가대와 분화되었다. 또 이 해에는 여전도회성가대와 단비찬양단이 새로 만들어지 면서 명암교회 성가대 문화를 다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제1남전도회와 제2남전도회 등 두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졌던 남전도회는 1993년부터 제1남전도회·제2남전도회·제3남전도회·제4남전도회 등 4개로 분화되어 2006년까지 지속되었다. 또 1988년 5개의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했던 여전도회도 1992

152) 명암교회 30년사, 61.

년 두 개가 추가되어 제1여전도회부터 제7여전도회까지 있게 되었으며 1993년도에는 8여전도회가, 1998년도에는 9여전도회가 생겨나 모두 9개의 여전도회로 편성되었다.

1983년 모두 50명에 불과했던 명암교회 전체 제직의 수는 10년 만에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1990년 114명이었던 명암교회의 서리집사는, 1991년 131명(남33/여98), 1992년 134명(남36/여98), 1993년 157명(남50/여107), 1994년 190명(남56/여134), 1995년 182명(남52/여130), 1996년 202명(남55/여147), 1997년 226명(남66/여160), 1998년 198명(남55/여143), 1999년 207명(남59/여148)으로 늘었다. 1988년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명암교회 서리집사의 수는 8년 만인 1996년 200명을 돌파하였다.¹⁵³⁾

다. 성숙의 시기(2001-현재)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명암교회는 ‘매일 기도의 강단’을 운영하였다. 1999년부터 시작된 ‘매일 기도의 강단’은 자원하는 성도들이 하루 1시간씩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운동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기도제목은 일주일, 한 달, 일 년 단위로 주어지고, 하루 중 오전 9시와 11시, 오후 3시와 9시를 기도시간으로 정했다. 1999년 26명으로 시작한 ‘매일 기도의 강단’은 2002년 33명을 거쳐 지금은 46명으로 참여자가 늘어났다.

2000년대 명암교회의 제직회 조직은 지난 1990년대 후반의 12개 위원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즉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전도위원회, 관리위원회, 개척위원회, 봉사위원회, 재정위원회, 장학위원회, 친교위원회, 환경보전위원회, 차량관리위원회, 경건절제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 운영되었다. 그리고 2006년에 다시 세 개의 명암 특별위원회가 새로 생겨났는데, 장기계획 5인위원회와 현금계수위원회 그리고 상조위원회가 그것이다. 명암교회 제직회 조직은 12개의 일반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 곧 12+3체제로 운영되었다. 또 2008년에는 미화관리위원회가 추가되어 13+3체제가 2009년까지 계속되었다.

명암교회는 2001년 7월에는 대성동 36번지 40.5평과 대성동 50번지 40.5평, 도로부지 29평을 매입하였다. 2004년 7월에는 지난 1997년 2월 사들였던 대성동 7-1,

153) 명암교회 30년사, 73-74.

37-1, 38-1번지의 집 3동을 헐어서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그리고 2006년 9월에는 총공사비 7억 4천만 원이 소요된 292평의 유치원 및 아동복지센터가 준공되었다.

2000년대 명암교회의 사회복지사업은 눈부시다고 할 만큼 다양하고 알차게 전개되었다. 먼저 ‘행복한 아동복지센터’는 1998년 ‘행복한 우리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명암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을 모아서 방과 후 학습을 시키고 돌보아 주었다. 2005년 12월 시청 허가를 받아 ‘행복한 아동복지센터’로 등록하고, 2006년 교회 옆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인을 위한 다사랑 쉼터를 운영하며 공부방에는 4명의 교사를 배치했다. 지금은 150여명의 학생들이 쉬면서 공부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명암장애인작업장’은 2003년 7월 1일 지역의 장애우 5명(시각 6급 1명, 청각 6급 1명, 지체 4-5급 3명)을 주축으로 출발하였다. 작업장은 교회 터를 넓히기 위해서 매입해 두었던 집 한 채를 이용하기로 하는 한편 세무서에 신고 후 2005년 1월 명암교회는 중소기업 ‘생활낙원’에 장애인작업장을 그 노하우와 함께 인계했다.

2000년대 명암교회의 주력 복지사업으로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독거노인돕기는 지난 2000년 1월 혼자 사는 노인 30여명에게 밀반찬을 만들어 매주 한 번씩 배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른바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한국사회는 1990년대 후반부터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예고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특히 일부 저소득 노인계층의 결식(缺食)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왔다. 명암교회는 1992년부터 매년 지역노인들을 초청해 대규모의 경로잔치를 벌인 전통을 갖고 있다. 2008년에는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850명이 경로잔치에 참여한 바 있다. 노인문제에 대하여 명암교회 성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열린 자세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1년 4월부터는 용담동과 탑대성동 사무소의 추천을 받아 30명의 독거노인들에게 밀반찬과 아울러서 우유도 제공하였다. 이렇게 30가정으로 출발한 독거노인 봉사는 2009년 85가정으로 늘었다.

다년간의 독거노인 돕기 사업은 명암교회로 하여금 다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제공하였다. 기존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자 이제 그 규모를

더 키워서 종합노인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명암교회는 먼저 2007년 11월 2억3천만원을 들여서 용담동 126-2(田 362㎡), 126-4(田 114㎡), 127-1(垵 202㎡)번지 등을 재가노인복지센터 부지로 사들였다. 노인들을 위한 종합요양기관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2008년 2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명암노인재가복지센터’의 허가가 났다. 총 11억4천5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에 달하는 센터 건축공사비 지원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2009년 3월 29일 상당구 용담동 126-2번지에서 ‘명암노인재가복지센터’의 기공식 있었으며 2009년 10월 15일에 준공되었다.

교회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현장인 ‘다사랑쉼터’는 2006년 2월 문을 열었다. 그곳은 누구든지 다 와서 무료로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이다. 명암교회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집 한 채를 구입하여 아늑한 찻집으로 꾸몄다. 25평 ‘다사랑쉼터’는 5개 그룹이 동시에 모여 만남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집기를 준비했다. 차(茶) 재료와 냉난방연료비, 인건비는 모두 교회에서 부담을 했다. ‘다사랑쉼터’는 2009년까지 운영 되었다.¹⁵⁴⁾

지금까지 명암교회의 역사를 살펴 보았다. 명암교회는 2000년대까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투자와 시간을 집중한 나머지 교회의 내실을 다지지 못해 교회의 성장이 둔화 되었으며 오히려 공동체성을 점점 잃어가는 원인이 되었다. 교회 외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내적인 부분을 놓쳐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명암교회가 다시 교회 공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그룹 사역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제 2 절 명암교회의 목회적 상황

교회는 사회와 분리 될 수 없다. 교회는 지역 사회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역이 확장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명암교회가 속해 있는 청주시 용담동지역 사회에 대해 살펴보고, 명암교회의 사역을 분석 평가하여 사역에 나타난 문제점 및 대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54) 명암교회 30년사, 154-157.

1. 지역 사회

명암교회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71-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용담동'은 본래 청주군(淸州郡) 동주내면(東州內面)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정책에 따라 용담리(龍潭里), 명암리, 유정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동담리라 명명하고 사주면(四州面)에 편입하였다. 1963년 용담동(龍潭洞)으로 바뀌어 청주시에 편입하였다.¹⁵⁵⁾

교회 주변에 상당산성, 청주동물원, 청주랜드사업소, 국립청주박물관, 명암저수지 등 시민憩터 조성으로 청주시민의 레저 및 휴식공간들이 위치해 있으며 동부우회도로의 개통으로 대전, 보은, 충주, 진천 방면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신흥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져 이웃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도·농 복합의 이미지로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다.

청주시 인구는 1949년 64,463명에서 2008년 644,223명, 2013년 679,301명으로 증가 했으며 교회가 위치한 용담동의 인구는 2014년 8월 현재 12,031명이다.¹⁵⁶⁾ 교회가 위치가 지역은 주거지역이 상가보다 많으며 교회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 분포의 비율이 높다.

용담동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는 시골 농촌의 모습이었으며 교통도 매우 불편한 지역이었다. 2000년 이후 도시개발정책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도로가 확장되면서 용담동 일대가 개발 되었고 농촌의 모습에서 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그 결과 많은 문화공간들이 주변에 자리하게 되었고 지금은 청주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되어 인구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용담동 지역은 무속신앙인들이 많이 거주했다.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으로 유명했다. 이곳에 교회가 건교하게 세워짐으로 무속신앙인들은 자리를 떠나갔고 또한 교회가 위치한 길 건너 지역인 금천동 일대에는 상가와 아파트 단지가 있어 사역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155) 청주시청, “동지명 유래”, Online: <http://www.cheongju.go.kr/yongdam/contents.do?key=3707>

156) 청주시 통계정보, “인구통계”, Online: <http://www.cheongju.go.kr/stat/selectBbsNttList.do?bbsNo=534&key=1708>

2. 목회적 상황

명암교회의 목회적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상황과 교육적인 상황,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의 모습이 나타난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청주에서도 시골에 속하는 곳이었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 졌고 그 곳에 거주하는 성도들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반면에 기존에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에 속한다. 일반 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다. 또한 성도들의 연령이 고령화 되어 있다 보니, 은퇴 이후 경제적인 기반이 약해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전문 직종에 종사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경향을 가지기 쉽다. 이러한 상처는 서로에 대한 사랑보다는 의심으로 발전하기 쉽다. 상처와 의심은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돕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교육적인 수준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본다. 높은 연령층에서는 교육 수준이 약하기에 양육을 위한 리더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젊은 연령층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리더를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종교적인 상황을 보면, 주변에는 금천교회라고 하는 대형 교회가 있기에 중형 교회로서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하는 과제가 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기복적인 것에 관심이 크다 보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충실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소위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 생활하는 이들도 있는 형편이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 신앙 생활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졌 하나의 숙제이다.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문제를 내어 놓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바람직한 신앙을 갖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새로운 담임목사로 부임하신 유영기 목사가 목회적으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먼저 기도 운동에 좀 더 전력을 다하고자 했다. 본 연구자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금요기도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매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온 성도가 자신의 문제 뿐 아니라 교회의 문제와 나아가 국가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함 받는 시간을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더 많이 간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더 체험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속에서 경험하는 곤고함을 극복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그룹으로 기도하다 보니 공동체 구성원의 깊은 필요와 갈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체험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큐티 반도 운영하고 있다. 두란노에서 출판되는 ‘생명의 삶’ 교재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명암교회는 새벽기도회가 뜨거운 교회이다. 성도의 30퍼센트가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며 월삭기도회와 특별 새벽기도회에는 이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적극참여하며 새벽을 깨우고 있다.

3. 소그룹 사역의 장점과 한계

명암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는 아니지만 소그룹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구역 소그룹, 전도 소그룹, 중도기도 소그룹이 있다. 그렇지만 소그룹이 역동적이기 위해서는 소그룹 안에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진정한 양육의 과정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하고 개방적이어야 하며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리더가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하다. 자신의 삶을 나누기 보다는 사역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사역하는 구조보다는 일 자체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하여 쉽게 제도화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을 가진다.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훈련된 제자가 교회의 영적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소그룹이 삶의 방식이 될 때에 가능하다고 본다.¹⁵⁷⁾

그러한 기반이 형성되기까지 현재의 소그룹 사역의 장점이 무엇이고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가. 구역 중심의 소그룹

명암교회 구역은 전통적인 교회의 구역과 거의 동일하다. 지역별로 구역을 조직하여 구역장과 인도자를 세웠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회가 그러하듯이, 구역장은 여전히 목회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구역장으로 구역을 이끌고 있지만 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미흡하다.

구역장이 하는 일은 매주 주중에 구역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인도한다. 이 때 하는 설교의 내용은 매주 교회에서 제공하는 교재를 사용한다. 이 구역예배에서는 구역장들이 삶을 나누기 보다는 구역 교재를 구역원들과 함께 읽어보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구역식구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해 주는 정도이다. 그래도 구역장들을 통해서 구역을 관리하고 있고, 구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알고 목양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역장이 구역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역장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구역 목회를 감당해 주어야 한다. 구역 안에 소그룹의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 구역이 하나의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구역 안에서 양육과 교제와 전도의 사명이 일어나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구역이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구역을 소그룹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송삼용은 네 가지로 이유를 설명한다.¹⁵⁷⁾

첫째로 교회관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교회관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회론에 접근하는 방식부터가 그렇다. 전통적인 교회관에서는 주어진 직분조차 은사적 측면보다는 계층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관에서는 주어진 직분조차도 은사적인 측면보다는 계층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관에 익숙해 있는 교회에서 평신도를 일깨워서 새로운 소명을 심어주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157) Andy Stanley &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13.

158) 송삼용, *구역장 불꽃처럼 일어나라* (서울: 브니엘, 2007), 17-18.

둘째로 적용의 문제이다. 소그룹 이론을 각 교회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실효를 거두는 경우도 많지 않다. 교인들의 수준이나 배경이 목회자의 철학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적용하다 보면 실패하기 쉽다.

셋째로 구조적인 문제이다. 한국 교회의 구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 중심의 피라미드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행정, 심방, 교육, 설교 등을 모두 감당한다. 따라서 목회자 중심의 구조에서 평신도를 발굴해서 일꾼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평신도를 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로 인식의 문제이다. 일부 교회에서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목회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전통적인 목회 현장에서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소그룹 사역이 아무리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전통에 익숙해 있는 교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교회는 기존의 틀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구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소그룹 사역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회의 구조에 있어서 구역장처럼 소중한 직분은 없다고 본다. 어떤 면에서 교회의 성장의 관건은 구역장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구역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도록 동기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 단순하게 교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한 영혼을 목양하는 구역 목회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¹⁵⁹⁾

구역장이 구역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송삼용은 네 가지 사역을 해야 한다고 본다.¹⁶⁰⁾ 첫째로는 양을 알아야 한다(요 10:14-15). 구역장은 양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한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한 점점 뿐 아니라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헌금하는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지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는 양을 찾아야 한다(눅 15:4).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한 점에서 구역 역시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구역장은 먼저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약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셋째로 양을 먹여야 한다(요 21:17). 양을 먹이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한

159) 송삼용, *구역장 불꽃처럼 일어나라*, 20.

160) Ibid., 133.

점에서 구역장은 구역원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 기도를 통해서 양육할 수 있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양육할 수 있고, 모범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육할 수 있다. 양육에는 희생의 헌신이 따르게 된다.

넷째로 양을 지켜야 한다. 죄로부터 구역원을 보호해야 하고 여러 가지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이단 사상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구역이 하나의 생명체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구역장들의 사역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구역장들로 하여금 섬김의 리더십을 체질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나. 전도 중심의 소그룹

명암교회의 전도 소그룹은 매주 목요일 오전마다 모여서 전도하는 소그룹이다. 전도 소그룹은 매주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다. 지역 상인들에게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전도지를 지역 사회에 배부하기도 한다.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간단한 복음 제시 훈련을 시키고 함께 전도하도록 한다.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만 전도하는 것은 아니다. 해마다 새생명 축제 전도 행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전도행사를 하지만 늘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고 교회 전체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전도되어서 온전히 교인으로 정착하는 숫자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양육에도 부족한 점이 있고 등록한 후 관계 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명암교회로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도 소그룹이 적당하다고 본다. 요즘 아파트 문화가 발달하고 핵가족화 되는 이 시대에 관계를 맺지 않고 전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전도 현장에서 전도되는 경우를 보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전도되는 것보다는 좋은 관계 형성을 통해서 전도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교인들 주변에 불신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불신자들과 만나는 교인이 있을 때 전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 있어

서 전도 소그룹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할지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이 고민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선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매우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 이웃을 섬길 때 홀로 섬기는 것보다는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섬겨줄 때 불신자들이 많은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고마움을 느낄 때 비로소 교회에 초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도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수확이 없어도 기다려 주고 계속해서 섬긴다면 그것은 관계형성을 위한 한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불신자가 교회에 오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제자들 교회에서는 성공적인 전도 소그룹을 위해서 다섯 단계를 제시한다.¹⁶¹⁾

첫 번째 단계로서는 기도하는 단계이다. 전도는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본다. 전도는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몇 분간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야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그를 위하여 충분히 기도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도 대상자와 일대일 관계를 세우는 단계이다. 이때에는 교회에 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격려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에 꼭 필요한 것들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 소그룹과 함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바자회를 열어서 가정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원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자회에 참여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체 소그룹과 관계 형성을 가지게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소그룹에 초대하는 것이다. 소그룹 모임 때에는 환영의 준비를 위해서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이나 음식을 준비하게 되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때에는 철저하게 전도 대상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단계이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식사가 있어야 하고, 쉬운 노래와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신앙 간증이 있으면

161) 김동현, *(제자들교회) 전도소그룹 이야기* (서울: NCD, 2009), 119.

더욱 좋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밝은 분위기를 필요로 한다. 소그룹 리더는 언제나 밝은 얼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좋은 리더를 발굴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중요하다.

다. 기도 중심의 소그룹

명암교회는 새벽 기도가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이다. 매일 새벽 80여명의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문제보다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중보 기도하는 소그룹이다.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기도 소그룹이다.

성도들은 이 새벽 기도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고백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교제의 깊이가 깊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영적인 교제의 깊이는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공동체는 서로 연결될 때에만 건강해지고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중보기도 소그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광주환은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¹⁶²⁾

첫째로 ‘한 몸 의식’을 가지게 한다.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어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 공동체 안에 ‘한 몸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일수록 한 몸 의식이 강하다. 서로의 연결이 강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보기도가 활발하지 않은 교회는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질 수 없다.

둘째로, 이렇게 한 몸 의식을 가지게 되면 서로를 위해서 지탱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우리의 몸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감염되면 그것을 이기려고 온 몸이 총동원된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탱해 준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다. 그리스도의 몸에 다른 지체를 지탱해주는 역할

162) 광주환,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서울: 진흥, 2005), 227.

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로, 한 몸 의식으로 서로를 위해서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면 작은 지체라도 스스로 소중함을 깨닫는다. 교회 안에도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우열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소위 작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도 영적인 자존감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작은 자가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한다면 교회가 진정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목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추진력을 모을 수 있다. 기도는 교인들의 마음을 모으고 관심을 모은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하나로 묶어 주는 힘이 있다.

다섯째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은 홀로 있을 때에도 역사하시지만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엡 2:21-22).

이상의 다섯 가지 유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 소그룹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중요한 원리임을 알 수 있다. 중보 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소그룹 내에서 중보 기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목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암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지만 소그룹 중심의 교회이기 보다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소그룹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구역 소그룹 이외에는 목회자가 지도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도 소그룹, 기도 소그룹은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직 소그룹을 이끌 리더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결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앞으로 명암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소그룹 중심의 목회 비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비전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비전과 현실 사이에 가질 수 있는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6 장

명암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 전략

본 정에서는 명암교회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 교회로 성숙해 지기 위해 소그룹 사역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 비전은 평신도를 세우는 것이다.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양육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평신도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다. 전통적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그룹과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는 평신도 리더십을 개발하는 가운데 소그룹 사역을 지향하는 목회구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장에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제 1 절 소그룹 사역을 위한 준비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의 전환에 앞서 명암교회의 현재 소그룹 사역(구역, 전도, 기도)에 있어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서 소그룹에 관한 분석을 해보았다.

다음은 명암교회 각 구역장, 구역 인도자, 구역원을 대상으로 한, 소그룹(구역, 전도, 기도)에 관한 평가와 진단 설문 조사 결과이다. 총 질문의 문항 수는 8가지로 참여한 인원은 81명이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명암교회 성도들의 소그룹에 관한 의식을 통해 몇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표 1> 소그룹(구역, 전도, 기도)에 관한 분석

항목	질 문
1	나는 현재 소그룹(구역, 전도, 기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①예(56명, 69%) ②아니오(25명, 31%)
2	나는 소그룹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①예(58명, 72%) ②아니오(23명, 28%)
3	현 소그룹이 교회성장에 기여를 한다고 보는가? ①예(42명, 52%) ②아니오(39명, 48%)
4	지금 현재의 구역장, 인도자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 ①예(52명, 64%) ②아니오(29명, 36%)
5	귀하의 소그룹의 구성원들은 참여도가 높은가? ①예(37명, 46%) ②아니오(44명, 54%)
6	현 소그룹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가? ①예(31명, 38%) ②아니오(50명, 62%)
7	현 소그룹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①예(56명, 69%) ②아니오(25명, 31%)
8	새로운 소그룹을 도입할 시 적극 참여하겠는가? ①예(48명, 59%) ②아니오(33명, 41%)

<표 1>은 명암교회 소그룹(구역, 전도, 기도)에 관한 분석이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소그룹의 이해와 역할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나 있다. 그런데 현재 소그룹이 교회 성장에 기여한다고 대답한 숫자가 52퍼센트로 42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구역 소그룹의 구역장, 인도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대답이 81명의 응답자 중 52명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64퍼센트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 참여도에 대해서 역시 응답자 81명 중 37명이 참여도가 높다고 했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수도 44명으로 절반이상에 이른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현 소그룹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려 응답자의 81명 중 56명, 69퍼센트가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25명, 31퍼센트가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역시 절반 이상이 현 소그룹제도에 개선점을 지적했다. 그리

고 새로운 소그룹의 도입시 적극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81명 중 48명이 응답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 명암교회의 소그룹이 어느 정도 교회의 성장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소그룹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69퍼센트의 의견이 타당성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미루어 볼 때, 현 명암교회의 소그룹은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명암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전통교회는 대그룹 사역이 중심이며 목회자 중심이며 또한 관리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평신도들은 관객이 되거나 아니면 행정 혹은 관리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행정이나 관리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반면에, 소그룹 중심의 교회에는 양육과 섬김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리더십의 변화는 리더십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이 점을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교회의 가치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하게 된 이유에는 분명 전통적인 교회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소그룹의 가치를 이해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길이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에서는 소그룹의 가치가 간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어떻게 세울 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세우는 것은 미래의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매우 소중한 일이라 여겨진다.

1. 기존 조직과의 균형 유지

명암교회의 대표적인 소그룹이라고 한다면 구역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구역

소그룹은 지리적인 구역 조직으로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필요라든가, 구성원들의 영적 수준과 필요가 무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의 달란트와 장점들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셀 교회, D12와 같은 평신도를 깨우는 사역은 참으로 도전을 주는 사역이라 여겨진다. 소그룹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기 전에 셀이나 D12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목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면 교회 구성원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것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그동안 전통적인 목회의 단점이라고 여겨지던 점들을 반성하고 소그룹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그룹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은 분명하다고 본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갈 때에만 교회에 보다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세상을 향해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조직과의 균형 유지이다. 어떻게 기존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먼저 전통적인 목회의 단점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평신도는 목회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경향이 강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 심방하는 일들의 대부분을 목회자가 주도해 왔다. 또한 평신도를 리더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도 부족하다 보니 평신도는 양육하고 심방하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목회자가 어떻게 사역하는 지에 대해서 늘 관객의 입장에서만 지켜보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 평신도는 목회자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지도 못하였고 긍정적인 사역자가 되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D12 양육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는 김성곤은 전통적인 목회에 대해서 ‘목양 목회’ 내지는 ‘젓병 목회’라고 지적한다. 교회에 출석한 지 몇 십년이 되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나 교회 안의 작은 문제도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목회자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린 양떼를 돌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비전으로 가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¹⁶³⁾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에 성도로

163) 김성곤, “한국적 토양 위에서 재생산,” 62.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본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며 성도 간의 관계를 더 강화시킴에 있어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긴다. 소그룹 중심으로 훈련할 때 제자 훈련을 잘 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변화를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며,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나름대로 충성해온 사람들로서 변화를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교회 활동을 통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득권을 놓는다고 하는 사실에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다. 변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교회라고 해서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목회 방법으로도 교회를 잘 유지해 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시대에 보다 적합한 목회 패러다임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시도하는 것이다.

소그룹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가기에 앞서서 현재 있는 소그룹, 특히 구역을 어떻게 하면 보다 양육하는 소그룹, 전도하는 소그룹, 관계 중심의 소그룹,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소그룹으로 점차 발전시킬 수 있는가가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리더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 사역의 현장에서 소그룹 리더십을 세우는 것은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훈련 과정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소그룹을 생각할 때 소그룹의 개념을 작은 교회 혹은 공동체로서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소그룹 안에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있고 목회적인 보살핌, 뿐만 아니라 전도의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소그룹 리더인 구역장은 목회를 이해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라고 한다면 평신도 가운데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치유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질 때라고 본다. 평신도 한 사람의 헌신적인 보살핌 위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것이 진정 부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⁶⁴⁾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차원보다는 소그룹의 가치를 이해하고 작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소그룹 개념을 이해하고, 그러한 개념을 잘 이해하는 리더를 세우는 일이 보다 소중한 과정일 것이다. 이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착 작업을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소그룹 중심의 사역을 위한 정착 과정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것을 위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향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에 맞는 교회의 목회 구조를 찾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답은 생명을 낳는 역동적인 소그룹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전도와 양육 그리고 번식이 이루어지는 소그룹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향한 정착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홍익교회 손철구 목사의 소그룹 토양화 작업 과정을 참고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¹⁶⁵⁾

첫째로 토양화 작업의 기초를 다진다. 토양화 작업을 위해서 우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지에 대한 학습과 함께 소그룹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그룹 양육과 관계된 과정들을 일일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 전도된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날 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기존의 소그룹 리더들에게 소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도록 이론적인 공부를 실시한다. 이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평신도로 하여금 평신도 목회자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자신이 사역자가 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다른 어떠한 사역보다 리더를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로 원형 소그룹을 시작한다. 원형 소그룹의 경우는 리더 양육에 초점을 두어

164) 송삼용, *구역장 불꽃처럼 일어나라*, 70.

165) 배성우, “토양화 작업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G12 교회,” *목회와 신학*, 2007년 7월호, 99.

야 할 것이다. 믿음과 영성을 강화하고 스스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소그룹 구성원들로 하여금 위대한 리더가 되기를 꿈꾸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리더로서의 비전을 심어주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 번째 노력은 먼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고쳐 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이다.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본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리더로 하여금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평신도 목회자로 세우는 일은 십자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기도하며 온 몸으로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헌신이 필요하다. 이 때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상처를 받고 도리어 교회를 떠나기 쉽다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¹⁶⁶⁾

두 번째 노력은 리더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역자들이 되었다. 리더는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기도로 모임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역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이며, 능력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능력을 발휘하는 자이다.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도록 수양회를 마련하며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기도에 힘쓰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할 때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는 소그룹 리더들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노력으로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게 해야 한다. 이 땅에서 당장 어떤 보상만을 기대한다면 자칫 실망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그룹 리더로서의 사역이야말로 영혼을 섬기는 사역으로서 하늘 상급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할 필요가 있다.

소그룹은 작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리더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한다. 대형교회보다는 가정에서 모였던 소그룹이 훨씬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다. 사도행전 2장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166) 서길원, *리메이크로 거둬나는 교회*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158-159.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가정에서도 모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소그룹이 바로 작은 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소그룹이 친교 모임으로 전락하지 않고 영혼 구원과 양육에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¹⁶⁷⁾

소그룹이 작은 교회로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이들이 서로를 섬기게 된다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서 성도들 자신이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다. 단순히 목회자에게 의존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양육되어질 것이라고 본다.

제 2 절 명암교회의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을 위한 방향

명암교회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목회구조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다. 그러나 이제는 소그룹 목회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목회를 부인하지 않기에 기존의 조직을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소그룹 목회구조를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그룹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발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공동체성 회복을 위하여 전교인의 사역화를 지향하는 소그룹, 두 번째는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소그룹, 세 번째는 전도가 활성화 되는 소그룹을 추구하고자 한다. 기존의 소그룹이 세 가지 면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전교인의 사역화를 지향하는 소그룹

소그룹을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홀로 소외되는 성도들이 있지 않도록 함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신앙은 홀로 성장하기 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섬기는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함께 삶을

167) 서길원, *리메이크로 거듭나는 교회*, 158.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릭 워렌은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인을 대상으로 이 교회를 택한 이유를 물으니, 응답자의 93퍼센트가 ‘목사님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다음 질문은 ‘만일 목사님이 떠나면 당신도 떠날 것입니까?’였다. 응답자의 93퍼센트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왜 떠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로를 향해서 묶어 주는 결속력이 목회자에게서 교인들에게 옮겨간 것이다.¹⁶⁸⁾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관계에서 친밀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인간은 사회성을 갖기에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사라졌다면 이미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성도들이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친밀감을 가지게 된다면 쉽게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소중하기에 쉽게 교회를 옮길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내가 교회에 있든지 말든지’식의 소속감을 상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쉽게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말 것이다.¹⁶⁹⁾

그러한 점에 있어서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소그룹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그룹에 속하도록 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주말 수련회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수련회 기간 동안 잘 훈련된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훨씬 쉽게 소그룹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소그룹의 성격이 동질의 소그룹일 때 효과적이라고 본다. 현재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소그룹인 구역을 어떻게 하면 동질의 소그룹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을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동질의 구성원으로 구

168)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외 공역 (서울: 디모데, 1995), 363.

169)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137.

성된 모델 소그룹을 시작함으로 인하여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공감하게 되었다고 여겨질 때, 지역 중심의 소그룹을 동질의 소그룹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모델 소그룹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은사에 따라서 동질의 소그룹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소그룹 안에서 모든 교인이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주는 것은 소속감과 자기 존중감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발굴하고 신앙공동체인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각각의 은사를 발휘하는 일은 목회자와 교인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에 따라 섬길 때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부분은 줄어드는 대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더 많아지게 된다.”¹⁷⁰⁾ 고 말한다.

평신도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여 은사에 따라서 섬길 때 기쁨도 넘치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은사를 개발할 때 목회자 중심으로 틀을 정해놓고 시작하기 보다는 평신도와 함께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먼저 다양한 소그룹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오늘날에는 다양한 사회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소그룹 보다는 연령별 소그룹, 은사에 적합한 기능별 소그룹, 전문인 소그룹 등으로 다양한 소그룹을 가져야 한다. 또한 소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선택하게 함으로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게 한다. 최상태 목사가 섬기는 화평교회의 경우 소그룹이 5-12명이 모이는데, 그 가운데 가장(리더), 예비가장, 총무, 찬양담당, 봉사담당, 새 가족담당, 선교담당, 전도담당, 성경읽기담당, 도서담당, 중보기도담당, 친교담당, 회계담당과 같은 역할을 준다고 한다.¹⁷¹⁾ 이러한 교회의 소그룹 구조를 참고로 해서 자신의 은사에 맞는 역할을 찾도록 돕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은사에 따라서 동질의 소그룹을 형성하는 것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새들백 교회의 소그룹 운영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70)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24.

171)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139.

고 본다. 새들백 교회의 경우 사역 대상에 따라서 네 종류의 소그룹 즉 공동체 그룹, 돌봄 그룹, 성장 그룹, 선교 그룹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등록 교인을 위한 공동체 그룹은 친교와 나눔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움에 필요한 사람을 위한 돌봄 그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성장과 제자 훈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장 그룹을 통해서 성경공부와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선교 그룹을 통해서 선교에 헌신하도록 훈련하고 있다.¹⁷²⁾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면, 평신도는 사역으로부터의 소외감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성도들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봉사 직분을 생각할 때 교사나 찬양대 정도만이 언급될 뿐이었다. 은사 개발 세미나를 통해서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돕고 은사에 따른 동질의 소그룹을 만들고, 그 소그룹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준다고 한다면 성도들 대부분이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에 따라서 전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소속감과 친밀감을 주어야 하고 동시에 은사 개발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러한 소그룹이 성공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리더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2.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소그룹

소그룹 사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된 평신도 리더를 세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본다. 예수님께서 리더를 세우실 때 12명의 소그룹을 통해서 세우셨다. 그러한 점에서 소그룹이야말로 리더를 세우는데 적합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단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다. 양육과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화이다. 따라서 훈련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훈련이 배우는 그 자체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보냄을 받은 자’인 사도와 같은 제자가 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¹⁷³⁾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하여 선택받았다고 하는

172) 장은일, *신사도적 교회 만들기 10단계 전략* (서울: 기독신문사, 2000), 115.

173)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119.

사실에 대해서, 릭 워렌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믿는 자는 목사는 아니지만 모든 믿는 자는 다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세상과 교회에 사역하도록 부르신다.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에는 자원군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현역으로 징용하셨다.¹⁷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사역자로 세우는 일은 그 어떠한 일보다 중요할 것이다. 리더를 세움에 있어서 릭 워렌은 세 가지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 세 가지는 헌신으로 시작되며, 습관 형성이 요구되고, 점차적인 성장 과정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보았다.¹⁷⁵⁾

첫째로 헌신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교회가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하는 것은 지도자의 헌신의 수준이 얼마나 더 높아져 있는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헌신을 요구해야 한다.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헌신과 연관되어 목회자가 할 일은 교인들이 무엇에 헌신해야 하고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도록 돕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의미를 주는 일에 반응하고 도전을 주는 비전에 끌린다. 사람들은 큰 헌신 뒤에 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헌신의 요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헌신을 요구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헌신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헌신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한 헌신한 다음에 그 헌신에 맞는 축하 행사를 해주며 그 헌신에 맞게 성숙하도록 도전을 주어야 한다.

둘째로 영적 성장의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적인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십일조를 드리는 습관, 그리고 교제하는 습관이다. 시간과 돈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셋째로 영적 성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영적 성숙은 거듭나면

174) Rick Warren, *새들백 교회이야기*, 408.

175) Ibid., 382.

자동적으로 일어나거나 혹은 특별한 소수에게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오해이다. 어떤 이는 성경 지식만 있으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에게에는 지식 뿐 아니라 경험이 있어야 성장한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지식과 적용이 있어야 하고 서로 간의 나눔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영적 성숙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소그룹을 통하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영적 성숙을 꾀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릭 워렌은 다섯 가지 항목의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¹⁷⁶⁾ 먼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는 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관점을 가지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유혹을 물리치고 진리에 뿌리박을 수 있다. 셋째는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신념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신념 없이는 어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아무런 동기나 열정을 가질 수 없다. 넷째는 기술을 가지도록 돕는다. 많은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다섯째는 인격이다. 이는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다섯 가지 항목으로 영적 성장 프로그램을 가진다고 한다면 교인들에게서 헌신을 받아내고 헌신을 받아내는 과정 속에서 리더가 자연스럽게 세워질 수 있다고 본다.

3. 전도가 활성화 되는 소그룹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한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섬김을 강조하고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는 다원화,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수많은 필요로 이루어진 계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전도로 접근하는 것이

176) Rick Warren, *새들백 교회이야기*, 390.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진다.¹⁷⁷⁾

전도가 활성화 되는 소그룹의 핵심은 우선 관계를 통해서 불신자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방법을 택한다. 그러한 점에서 전도 소그룹은 사역보다 우선 관계 형성을 맺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소그룹 구성원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돕는 일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한다.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사람의 전도자가 잘해주고 전도하면 한 사람만 보이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섬겨주고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면, 그는 그 공동체를 교회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신자가 교인들과 친해지는 동안, 불신자는 교회 공동체 대한 부담감과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으로 전도 소그룹을 시행하고 있는 김동현은 전도 소그룹을 실행하기 위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한다.¹⁷⁸⁾

첫째로 현재 교회 안에서 전도 소그룹을 적용할 때, 먼저 목회자가 전도 소그룹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한 장의 그림으로 분명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평신도 리더들에게도 분명하게 그려질 때 그 일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로 전도 소그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소그룹 리더와 구성원들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전 교회적으로 실행하지 말고 우선은 열심 있는 리더의 소그룹 3~5개 정도를 실행하고 점차로 넓혀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셋째로 전도 소그룹을 실시할 때에는 전교회가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본다. 교회가 무엇보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곳이라고 한다면, 소그룹이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소그룹이 전도를 지향할 때 전도를 다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선 전도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소그룹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정진우는 그의 책에서 네 가지로 지적한다.¹⁷⁹⁾

첫 번째 신화는 전도는 혼자서 한다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 번에 전도가

177) 이동원, “포스트모던 시대의 전도 패러다임,” *목회와 신학*, 2004년 2월호, 56.

178) 김동현, *(제자들 교회) 전도소그룹 이야기*, 50.

179) 정진우, *전도소그룹이 폭발한다* (서울: NCD, 2002), 16.

된다고 하는 것이다. 한번 불신자를 전도 집회 등에 참여시키면 단번에 회심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이다. 세 번째 신화는 전도를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도도 하지 못하면서 전도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만 가지게 된다. 네 번째 신화는 전도를 설득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특별히 전도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도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신화는 전도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 부담감만 주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NCD 연구팀에서 이러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그룹이 건강하게 역동하고 있는 1,400개의 교회를 조사한 결과, 전도는 개인이 아닌 그룹이,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관계없는 사람이 아닌 관계있는 사람에게, 설득이 아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정진우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다. “전도는 ‘함께, 여러 번,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축복이다.”¹⁸⁰⁾ 이처럼 전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충실한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심사가 남달라야 할 것이다. 세 가지 주요 관심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전도를 행사로 보기 보다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전도를 일회적으로 그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로 전도에 있어서 회심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제자 훈련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보면 회심을 경험한 이들이 또 다른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심에 있어서 제자훈련을 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로 전도를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관계 형성을 잘 가짐으로 인하여 영향력을 가지고 그 영향력은 전도에 매우 도움이 된다.¹⁸¹⁾

전도를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시스템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진우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네 가지 주기로 설명한다. 기도, 관계세우기, 추수, 번식이다.¹⁸²⁾ 첫째로 기도하기이다. 소그룹이 전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180) 정진우, *전도소그룹이 폭발한다*, 20.

181) Ibid., 20-21.

182) Ibid., 23.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불신자를 기입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관계 세우기이다.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시간을 할애할 것을 계획해야 한다. 셋째로 함께 추수하기이다. 불신자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 추수해야 할 시기가 온다. 그런데 역동적인 소그룹에서는 추수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추수한다. 함께 만나고, 내가 못하는 것은 소그룹 짝이 해주고, 그리고 그룹이 도와주고, 더 크게는 교회가 도와주는 것이다. 불신자가 들어와서 일단 등록하게 되면, 새신자 주변의 불신자를 확인하고 새신자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함께 전도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번식하기이다. 새신자로 하여금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관계를 맺고, 초대하도록 돕는다. 새신자에게 전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도우면서 제자훈련을 계획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도가 지속적으로 소그룹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맞는 구조이어야 한다. 불분명한 목적은 교회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함에 있다. 그러한 점에서 있어서 교회 구조는 관리가 아니라 새 신자 탄생, 양육, 번식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에서 몇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는 불신자들과의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그룹을 시작할 때부터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외부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태도이다. 유능한 소그룹 리더일수록 전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이다. 소그룹은 정기적으로 불신자를 초청하는 행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소그룹 안에서 활기 넘치는 가족 관계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려운 일에 대해서 나눌 뿐 아니라 삶의 일상사에 대해서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불신자들은 소그룹 내에서 삶을 나누는 것과 축하의 시간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 지체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넷째로는 리더십 개발이다. 리더의 중요한 임무는 반드시 인턴 리더를 발굴하여 차기 리더를 세워야 한다. 어떤 소그룹의 명칭을 가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용기를 줌으로 소그룹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¹⁸³⁾

183) 정진우, *전도소그룹이 폭발한다*, 69-72.

결국 소그룹의 활성화는 소그룹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그것은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 맺기를 통해서 초청한다. 그 다음 삶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소그룹에 마음을 열게 하고 제자 양육을 받게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불신자들과 관계 맺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통해서 소그룹은 더욱 역동적이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제 3 절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교회는 돌봄과 사랑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을 받은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한다. 교회 공동체성의 효과적인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 내의 소그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그룹은 기존의 목회 현장에서 소외되거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성도들까지 돌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성도들의 각자 은사에 따라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소그룹은 서로의 교제를 통해 돌봄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며, 교회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구조라고 여겨진다. 또한 소그룹을 통해서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구제할 수 있다면 소그룹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와 소그룹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그룹을 이끌어갈 리더를 찾아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소그룹 사역의 성공 여부는 리더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명암교회 소그룹 리더십 개발을 위한 과제를 생각해 보고,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소그룹 사역 리더십 개발 전략

목회자가 성도들을 직접 부지런히 살피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더 우선적인 사명이라고 한다면 평신도로 하여금 리더가 되도록 돕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도들에게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누구이며 또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¹⁸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진정한 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마 12:28).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마 28:19)는 이 말씀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한다.

제자 삼는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소그룹 사역에 헌신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대그룹의 경우, 무엇을 믿고 왜 믿어야 하는지를 말해 주는데 효과적이지만 개인적인 접촉과 섬세함에 부족하다. 소그룹은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직접 실습을 해 보게 함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¹⁸⁵⁾

소그룹을 통해 리더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예비 리더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제자 삼는 방법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자 삼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으로서 사역 기술 개발과 전도 훈련이 있어야 한다.

리더가 소그룹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역 기술이 필요하다.¹⁸⁶⁾ 첫째로 성경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다. 셋째로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주는 능력이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 지를 제 때에 적절하게 설명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사람들을 상담하는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이 기술 개발을 거부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립을 피하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 가운데 소그룹 리더들이 할 수 있

184) Bill Hull,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 박경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7), 117.

185) Ibid., 225.

186) Ibid., 262.

는 항목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소그룹 리더들은 기술 개발과 전도 훈련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제자 삼는 과정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출발점부터 목표점까지 분명한 그림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 그림을 통해서 자신 있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빌 헐은 그의 책에서 제자 훈련을 네 단계와 여섯 가지 단계 교수법으로 설명한다.¹⁸⁷⁾

첫 번째는 “와보라”(요1:39-42)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소그룹으로 돌보는 단계이다. 주일예배에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각 소그룹은 결속력과 돌봄을 제공한다. 성도들 가운데 50퍼센트 정도가 이 사역에 참여한다고 본다. 이 단계를 위한 교수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사실을 가르치고 이유를 설명해 준다.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마4:18-22; 막 1:16-20)의 단계이다. 첫 단계보다는 보다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한 단계로서 첫 단계 이수자의 50퍼센트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단계에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헌신을 다짐한 사람들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교수법으로는 방법을 보여주고 함께 행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나와 함께 있으라”(막 3:13, 14; 눅 6:13)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소수를 위한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 이수자 가운데 10퍼센트 정도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는 다른 이의 사역을 이끌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을 얻는 것이다. 특히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여 훈련한다. 교수법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파송과 함께 리더십의 위임의 단계이다. 여기서 교수법이라고 한다면 일을 맡기고 파송하는 것이며 마지막 단계이다.

이러한 네 가지 단계의 그림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첫 단계의 제자(리더)훈련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명암교회 역시 첫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두 번째 단계로 더 나아가서 세 번째

187) Bill Hull,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 276.

단계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 훈련과정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 명암교회 리더십 개발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소그룹 사역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현재 명암교회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소그룹 사역 리더십 개발과 더불어 소그룹 모델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본다.

소그룹 모델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그룹 안에서는 전도 활동이 있어야 하고,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양육도 지식 위주의 양육보다는 전도하기 위한 관계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전도는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다는 관계를 세워서 영향력을 전달하는 것이다. 나의 변화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소그룹 안에서는 전도, 양육, 봉사 그리고 번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우선 명암교회는 첫 번째 단계로서 기존의 구역에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구역은 지역 중심의 소그룹이기에 개인의 필요나 취향을 간과하는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의 역동성을 가지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기에 모든 구역에 다 변화를 주기 보다는 우선 몇 소그룹 모델을 출발시키고자 한다. 서로 친밀한 관계나 필요를 고려해서 소그룹 모임을 가지도록 한다. 이러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는 이유는 먼저 소그룹의 역동성을 경험하고 그 소그룹의 역동성을 통해서 번식하는 소그룹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소그룹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전도 소그룹의 모델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도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소그룹을 모집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개인별 전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 함께 불신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우선 소그룹이 전도 소그룹의 성격을 가

질 수 있도록 전도활동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27개 구역으로 된 소그룹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적극적인 리더가 있는 5개 정도의 소그룹들을 중심으로 전도 소그룹을 실시하고자 한다. 아파트와 주택 그리고 상가를 전도할 때 소그룹이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기 이전에 구역 소그룹으로 초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역초청 잔치를 준비할 때에는 각자 맡은 은사에 따라서 담당자를 두어 모든 소그룹 구성원이 한 가지 역할은 감당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전 성도들이 사역화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본다.

구역 초청 잔치를 통해서 소그룹 안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전 교회적으로 하는 초청 행사에 초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 기초 이론을 통하여 <표 2>와 같이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제시 하고자 한다.

<표 2> 전도 소그룹 모델 운영 계획

과정	구체적인 계획	준비 사항
1단계	전도 훈련(12주 과정)	교재, 장소와 시간 정함
2단계	기도(4주-특별 새벽기도회 병행)	기도카드 작성(전도대상자), 중보 기도자 선정
3단계	전도대상자 관계 세우기(4주)	함께 시간보내기(모임) 섬김(필요한 도움)
4단계	함께 관계 세우기(4주)	전도 대상자와 관계있는 사람과 동행(2인 이상)
5단계	소그룹 모임 초청(4주)	소그룹 구성원과 교류 및 식사
6단계	새 생명 전도 축제 초청	선물 준비

<표 2>는 전도 소그룹 모델 운영 계획으로 1단계 과정은 전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먼저 실시한다. 12주 과정의 커리큘럼을 세워 전도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배움으로 전도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며 전도 소그룹이 교회 성장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2단계 과정은 기도하는 단계이다. 전도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기도한 만큼 전도가 된다. 전도는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대상자의 영혼을 위해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전도소그룹이 시작되면 첫째 주 구역(소그룹)예배에서 중보 기도자를 정하고 기도카드를 작성한다. 전도소그룹 1주 과정에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에 예비신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한다.

3단계 과정은 전도대상자 중 1-2명을 만나서 관계를 세우는 과정이다. 3단계 과정에는 두 가지를 실천한다. 첫째는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낸다. 식사를 하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영화나 연극 관람도 하고, 특별한 기념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도 하고 가족끼리의 만나기도 한다.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관계를 세워 가는 것이다. 둘째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좋은 관계를 세워 나기 위해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다. 찾아보면 도움 일이 많이 있다. 큰 도움보다는 마음이 담긴 작은 도움들이 그들을 감동시킨다.

4단계는 함께 관계를 세워 가는 과정이다. 3단계에서는 전도대상자와 일대일로 만나 섬겼는데, 이 단계에서는 소그룹이나 교회 성도 중에서 자신의 전도대상자와 연관이 있는 성도와 함께 만나서 섬기며 관계를 갖는 것이다. 각 단계마다 거의 4주 정도씩 진행되는 동안 충분히 기도하고, 불신자들을 서너 번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성껏 섬긴다.

5단계는 다음 단계에 있을 새 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단계로 소그룹 모임초청이다. 그동안 관계를 세웠던 전도대상자들을 소그룹 모임에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어느 정도 관계를 세웠어도 예비신자들에게 직접 교회 나가자고 하면 잘 안 나오고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그 징검다리로서 각 소그룹에 초청해서 작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경험하게 해준다.

마지막 단계로 전도대상자들을 새 생명 전도 축제로 초청하는 것이다. 5단계 동안 기도하며 섬겼던 전도대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소그룹 공

동체로 초청하여 간접적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불신자들은 교회나 교인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보다는 부정적인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 인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중단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참사랑의 공동체요, 은혜가 넘치는 곳임을 보여 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 제자훈련을 목표로 하는 소그룹을 세우는 것이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를 통해서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지만, 지속적으로 제자훈련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그룹을 지향한다.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하는 소그룹이지만 결국에는 12명 모두가 차례로 다른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사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그룹 모임의 목표는 각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을 시키는 리더로 서게 하는 것이 관건이다.

결국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소그룹 안에 전도와 양육 그리고 제자 파송의 역할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소그룹은 제자(리더)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소그룹 안에서 다섯 가지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로는 배우는 과정이다.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라 소그룹 구성원의 간증이나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다. 둘째로는 사랑하는 과정으로서, 내가 왜 이 소그룹 구성원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셋째로는 연결하는 과정으로서 소그룹 안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넷째로는 진출하기의 과정이다.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과정은 떠나기의 과정인데, 배가의 과정이다.¹⁸⁸⁾

교회가 부흥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제자를 파송하는 과정까지 성공할 수 있는 소그룹을 세워야 한다. 제자훈련 소그룹은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다. 제자훈련 소그룹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개발하여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제자훈련 소그룹 사역은 31주 동안 실시된다. 제자훈련

188) Larry Stockstill, *미국 최대의 셀교회*, 백광진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9), 108.

소그룹 사역은 리더십 개발 사역에 있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가장 깊이 있고, 엄격한 규율을 적용한다. 훈련 과정은 베이직(4주), 기초교리(14주), 헌신(6주), 사역준비(7주)로 나누어져 있으며¹⁸⁹⁾ 아래와 같이 제자훈련 소그룹 커리큘럼을 실시하고자 한다.

<표 3> 제자훈련 소그룹 커리큘럼(31주 과정)

과 정	교육 내용
베이직(5주)	오리엔테이션 및 경건의 시간(말씀, 기도)
기초교리(14주)	성경, 삼위일체, 믿음
헌신(6주)	영적 성장 및 성숙, 순종의 삶
사역준비(7주)	소그룹 성경공부와 리더십 및 인도법

<표 3>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자훈련 소그룹 커리큘럼 31주 과정 중 베이직(5주)은 아주 기본적인지만 중요하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소그룹 리더로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또한 훈련 과정을 소개한다. 또한 경건의 시간은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매주 해야 할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운다.

기초교리(14주) 과정은 그리스도인으로써 반드시 알아야 할 교리의 체계를 배우는 과정이다. 소그룹 리더는 단지 리더십만 갖춘 리더가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리더가 되어야 한다.

헌신(6주) 과정은 기초교리를 배운 리더들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과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지만 성경적인 지식만 가졌을 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은 단지 성경적인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앙인격을 갖추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친다. 이렇게 함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리더로 헌신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사역 준비(7주) 과정은 실제로 소그룹을 이끌어가기 위해 필요한 기능적인

189) 제자훈련 소그룹은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출판하는 “제자훈련” 교재 사용.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한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과정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소그룹 성경공부를 리드하는 훈련과 귀납법적 성경 해석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소그룹을 맡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리더십을 가지고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양성한다.

<표 4> 제자훈련 운영 시간표

소요시간	수업 내용
대화의 시간(15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눔
과제 점검(15분)	과제물을 발표하는 시간
찬양과 기도(20분)	찬양을 부르고 기도제목으로 합심기도
교재 교육(60분)	교재를 다룸
찬양과 마무리(10분)	찬양과 마무리 기도(광고)

<표 4>는 제자훈련 운영에 관한 시간표이다. 총 제자훈련 소그룹 모임은 120분이다. 대화의 시간 15분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한다. 과제 점검 15분은 암송, 큐티, 독후감 등 과제물 해온 것을 발표하고 나눈다. 찬양과 기도는 20분 정도로 그 날의 주제에 맞는 찬양을 부르되 쉽고, 잘 알고, 은혜가 되는 복음송이나 찬송가를 한 두 곡정도 선택해서 계속 부르면서 기도 제목을 따라 합심기도, 대표기도, 중보기도 등 다양한 기도 방식을 선택해서 기도한다. 교재 교육은 교재를 사용해 60분 동안 다루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과 결단과 결심의 기도 후에 공지사항을 알려주고 제자훈련 소그룹 모임을 마치도록 한다.

제자 훈련 소그룹을 세우기까지 예상되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다. 우선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하고,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 성도들로 하여금 소그룹 안에서 각자 은사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리더 과정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다 채워줄 수 없는 양육과 훈련의 부분 즉 내적 치유나 갈등 해결 방법 혹은 중보기도 훈

련과 같은 훈련 프로그램을 대그룹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비슷한 취향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다. 예배 음악 소그룹, 유아 교육 소그룹, 결혼에 관련한 소그룹, 스포츠와 관련된 소그룹, 같은 직업과 연관된 소그룹 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소그룹 리더를 세울 수 있는 교회 전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명암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 전략들을 기술하였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소그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소그룹 사역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에 존재하던 소그룹과의 균형유지와 소그룹 중심 사역을 위한 정착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교인의 사역화를 지향하는 소그룹과 소그룹의 성패를 좌우하는 평신도 소그룹 리더를 훈련함과 더불어 훈련 이후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전도가 활성화 되는 소그룹을 세워가야 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소그룹 사역 리더십과 소그룹 사역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았다. 명암교회가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명암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의 모델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한다.

제 7 장

결 론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 부흥하며 성장을 이루어 왔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우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분열과 다툼, 목회자의 타락, 성도들의 비도덕성,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 사회에 대한 무관심, 세속적인 교회 등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비난과 질책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하는데 교회는 그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도 많은 도전과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금 대다수의 교회가 정체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꼽는다면 공동체 정신의 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건강하고 세상에 진정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시도된 많은 사역들 가운데 소그룹 사역은 오늘의 한국교회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고 있다. 소그룹 사역이 처음 시작될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소그룹 사역이 교회 성장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을 공동체성에서 찾고자 했다. 그렇기에 교회의 본질로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본 연구자의 목적은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회복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

리고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소그룹 사역 중심의 교회가 그 방안이 됨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의 연구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방법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이해’를 연구하면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공동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기체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지체로서 몸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써야 함을 논하였다.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공동체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들의 존재론적 이유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참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았으며, 공동체적 존재로 태어났으나 공동체의 파괴로 인해 소외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공동체를 제공할 책임이 교회에 있음을 논하였다.

3장에서는 ‘소그룹 사역을 통한 교회 공동성 회복’을 위해 교회가 참된 공동체가 되고 지체된 성도들이 공동체의식과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이 소그룹 활성화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소그룹의 필요성과 소그룹의 정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소그룹 운동 사례를 살펴보므로 소그룹이 왜 필요하며 어떠한 유용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4장에서는 ‘소그룹 사역 활성화 전략을 통한 공동체성 회복 사례 연구’를 통해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성이 회복, 강화되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양 화평 교회와 평택 대광교회의 사례를 살펴보므로써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 공동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5장에서는 ‘명암교회의 역사와 목회적 상황’으로 앞 장에서 언급한 공동체 교회와 소그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시무하고 명암교회의 역사로 설립과 성장과정(발돋움의 시기, 부흥과 성장의 시기, 성숙기의 시기) 그리고 목회적 상황을 살펴보고 명암교회 소그룹 사역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명암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 전략’으로 소그룹 사역을 위한 준비와 소그룹 사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그룹 사역 리더십과 소그룹 사역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 공동체 회복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사역으로 소그룹 사역을 제시하였다. 소그룹 사역은 교회의 선택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교회는 소그룹 사역이 활발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지상주의를 추구하며 공동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대그룹 중심의 구조와 목회자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오늘날의 교회의 본질로서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본을 보이고 있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소그룹 중심에 대한 비전과 인식을 공유해야 하며, 개교회에 적합한 소그룹 리더 훈련과정을 통해 좋은 리더를 발굴하고 준비해야 한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소그룹 안에서야말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 즉 복음 전도, 돌봄, 구제, 양육, 훈련, 파송 등을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은사를 중심으로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서 전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소그룹이야말로 매우 효과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살리는 것이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형성이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 목회의 진정한 의미는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여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는 것이다. 성장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대안이 바로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존재목적과 사역 방향을 다시 한 번 재정립해야 한다. 평신도를 세워 함께 동역할 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 잃어버린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평신도를 훈련하고 세워줄 때 비로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목회자는 어떠한 사역보다도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 노력해 한

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소그룹 리더를 양육하는 데 전력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소그룹 사역이 진정 교회가 성경적인 공동체로 변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지역 사회를 향해 구제와 전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과정을 잘 감당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또한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많은 한국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게 되기를 제안한다.

참고 문헌

1. 국내서적

-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2001.
- 곽주환.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서울: 진흥, 2005.
-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가족교회*. 용인: 킹덤박스, 2013.
- _____.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의 공동체성: 인간의 존재 방식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 증거, 그리고 교회에의 적용.” *개혁신학* 18권 (2005).
- 김남용. *역동적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라*. 서울: 멘토, 2002.
- 김남준. “목회적 관점으로 본 교회의 공동체성.” *목회와 신학*, 1999년 4월호.
- 김동현. *(제자들교회) 전도소그룹 이야기*. 서울: NCD, 2009.
- 김성곤. *다시 쓰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NCD, 2007.
- _____. “우리 교회 전도를 말한다.” *월간 목회*, 2007년 8월호.
- _____. “한국적 토양 위에서 재생산.” *목회와 신학*, 2007년 7월호.
-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서울: 두란노서원, 2000.
- _____.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서원, 2003.
-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 김흥기.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_____. 외. *존 웨슬리의 역사신학적 조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출판부, 1995.
- 남경태. *개념어 사전*. 파주: 들녘, 2006.
- 남기철. *현대신학해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도원욱 외. *성장하는 14교회 장년부 부흥 전략*.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 명성훈.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5.
- _____. *부흥뱅크*. 서울: 규장문화사, 1999.
- 문석호. *21c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줄과추, 1998.
- 박봉배 외. *기독교윤리학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 박영신, 정재영. *현대 한국사회와 기독교*. 서울: 한들, 2007.
-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출판사, 2006.

- _____. “한 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목회와 신학*. 2003년 2월호.
- 박준형.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목회와 신학*. 2007년 7월호.
- 박찬식, 이우성. *2020프로젝트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 배성우. “토양화 작업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G12 교회.” *목회와 신학*. 2007년 7월호.
- 배창돈. *나는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 예찬사, 1993.
- 서길원. *리메이크로 거듭나는 교회*.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 송삼용. *구역장 불꽃처럼 일어나라*. 서울: 브니엘, 2007.
-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 역사편찬위원회. *청주동산교회 60년사*. 청주: 청주동산교회 60년사 편찬위원회, 2011.
- _____. *청주명암교회 30년사*. 청주: 청주명암교회 30년사 편찬위원회, 미발행.
- 오정현. “창조력 있는 사역은 팀 사역에서 나온다.” *목회와 신학*. 1995년 9월호.
-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 유성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 서울: 평단문화사, 2011.
- 은준관. *실천적 교회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6.
- 이동원. “포스트모던 시대의 전도 패러다임.” *목회와 신학*. 2004년 2월호.
- 이문균. “삼위일체 신관에서 본 교회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0집. 서울: 한국기독교학회, 2003.
- 이문장. “왜 한국에서의 기독교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나.” *목회와 신학*. 2004년 10월호.
-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이숙중. *현대사회와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이원규. *종교사회학: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1.
- _____. *한국 사회 문제와 교회 공동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사회와 교회*. 서울: SFC출판부, 2005.
- 이종성.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9.
- 이후정. *성화의 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임성빈.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7.
- 장은일. *신사도적 교회 만들기 10단계 전략*.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 장학일.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1999.
- 정웅섭. “그룹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 1980년 6월호.
- _____. *현대 기독교 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1.
- 정진우. *전도소그룹이 폭발한다*. 서울: NCD, 2002.
-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 채이석.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는 D12.” *목회와 신학*. 2007년 7월호.
-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한정애. *교회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2. 번역서적

- Banks, Robert J.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론, 1999.
- Beasley-Murray, G. R. *예수와 하나님 나라*.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 Beckham, William A. *제2의 종교개혁*.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4.
- Bilezikian, Gilbert. *공동체*. 두란노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2002.
- Comiskey, Joel. *셀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Easum, William M. *교회성장 핸드북*. 안승철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Finnell, David. *셀 교회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9.
- Frazee, Randy. *21세기 교회 연구: 공동체*. 차성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3.
- Gangel, Kenneth O. *최강의 팀워크를 만드는 전략노트*. 김창동 역. 서울: 디모데, 2003.
- Hull, Bill. *목회자가 제자 삼아야 교회가 산다*. 박경환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7.
- Ladd, G. E. *신약신학*. 신성종 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5.
- Long, Jimmy. *소그룹 리더 핸드북*. IVF자료개발부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6.
- MacArthur, John.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 1989.

- Neighbour, Ralph W. Jr.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3.
- _____. *셀목회 지침서*. 장학일 역. 서울: 서로사랑, 1999.
- _____. *셀인턴 지침서*. 터치코리아사역팀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1.
- Reid, Clyde.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서울: 쿼란, 1996.
- Schwart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인 외 역. 성남: 도서출판 NCD, 2009.
- Snyder, Howard A.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
- _____. *성령의 표적*. 명성훈 역. 서울: 나단, 1994.
- _____.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레*. 조종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 Stanley Andy & Bill Willits. *소그룹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교회*. 이중순 역. 서울: 디모테, 2006.
- Stockstill, Larry. *미국 최대의 셀교회*. 백광진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9.
- Toffler, Alvin. *제 3의 물결*. 김진욱 역. 서울: 범우사, 1992.
- Trudinger, Rom. *가정 소그룹 모임*. 장동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 Wagner, E. Glenn.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테, 1995.
- Watson, David L. *웨슬리와 속회*. 한경수 역. 인천: 성서연구사, 1986.
- Williams, Colin W. *존 웨슬리의 신학*. 이계준 역. 서울: 전망사, 1990.

Vita of
Jin Chul Lee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of Myungam Presbyterian Church, Cheong Ju.

Personal Data:

Birthdate: September, 6, 1969
 Marital Status: Married to Si Il An
 Home Address: 171-2 Yongdam Dong, Sangdang Gu,
 Cheong Ju, Korea.
 Denomination: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April, 20, 2013.

Education:

Th. B.: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Gyeongsan, 2005
 M. Div.: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Gyeongsan, 2011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3

Personal Experience:

7/2013 to present: Assistant Pastor of Myungam Presbyterian
 Church, Cheong Ju.